

## 경북, 청년·6차 농업 키워 '지방 소멸 극복' 순탄대로

우수사례 공유회... 각계서 동참  
고령화 등 근본적 해결방안 논의  
농·산 연계, 청년 육성 계획 수립

경북도는 지난 19일 청년 농업인, 6차 산업 준비 경영체와 농업 특성화고 재학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농업 6차 산업 및 청년 농업인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 인구 소멸, 도농 소득 격차 심화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한 20인(6차 산업 인증 경영체, 청년 농업인)의 우수 사례를 담은 사례집 배포와 관련 제품 등을 전시했다.

경북도는 청년 농업인과 영농 종사자들이 기존 농업·농촌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1차 농업과 2, 3차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면 농촌에서도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우수 사례 발표는 자두와 복숭아를 생산하고 전 연령 대상 체험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여득기 불날 가득농장대표, 한의학 박사로 들기름, 참기름 등 유제품 제품을 연구·가공·유통하면서 청년·노인 일자리 창출과

농가수매, 창업교육 제공 등 지역 사회 기여를 실천하는 이우락 ㈜농부플러스 대표, 안동 맹개마을에서 우리 밀로 만든 진맥소주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박성호 농업회사법인 ㈜밀과노닐다 대표가 말했다.

이외에도 농촌융복합(6차)산업 인증 제도 소개와 컨설팅 희망 경영체 15명을 대상으로 식품제조 가공·설비, 온라인 홍보 마케팅, 브랜드 디자인 분야 등 1대 1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해 농업경영과 창업의 이해를 도왔다.

경북도는 농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해 6차 산업인증 경영체를 현재 281개소에서 오는 2026년까지 400개소로 확대한다. 또 6차 농업 핵심주체인 청년 농업인 양성을 위한 '경북 디지털 청년 농업인 육성 중장기 계획'을 마련, 오는 2026년까지 청년 농업인 5000명(2022년 말 현재 2580명)을 집중 육성, 미래 농업을 준비한다.

이철우 도지사는 "청년 농업인과 농업 6차 산업의 성공사례가 지역 곳곳에서 확산된다면 농업 대전환과 저출생 극복은 물론 농촌의 소멸 위기도 분명히 해결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6차 산업 인증 사업자와 청년 농업인을 지속 발굴·육성하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20년간 굶주린 마음에 온정 나눈 '사랑해밥차' 19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열린 '사랑해밥차 무료급식소 20주년 기념행사'를 앞두고 자원봉사자들이 김밥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통기타와 사물놀이 등 거리공연을 하던 '사랑해장애인예술단' 회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뜻을 모아 시작한 '사랑해밥차'는 이날 20주년을 맞이했다. 매주 화·목요일 열리는 이 무료급식소에는 하루 1000여명이 찾고 있으며 한해 약 10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뉴스1

## 美 디지털 헬스케어社 '엘비스' 대구에 등지

수성알파시티 내 175억 투자해  
AI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설립

대구시는 지난 19일 엘비스와 수성알파시티 내에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엘비스'는 한인 여성 최초로 미국 스탠퍼드대 종신교수로 임용된 이진형 창업자가 지난 201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한 인공지능 기반 뇌질환 솔루션을 연구·개발하는 스타트업이다.

뇌 회로를 분석해 치매·뇌전증 등 각종 뇌 질환을 진단하고 최적의 치료법

을 제안하는 인공지능 기반 딥러닝 소프트웨어 '뉴로매치(NeuroMatch)'를 개발해 지난해 미국 식약처(FDA) 및 국내 식약처에서 승인을 받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엘비스는 수성알파시티 내 870㎡(263평) 부지에 175억원을 투자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계명대 동산병원, 경북대 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기톨릭대병원, 대구의료원, 대구파티마병원 등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기업이 '초등맘 10시 출근' 도입하면 경북이 '지원금' 쏟아

도내 중소기업 대상 장려금... 저출생 전쟁 전략사업 실시  
출·퇴근 1시간 단축 시 약정별 장려금 최대 100만원까지

경북도는 초 저출생의 위기를 맞아 자녀 돌봄에 관한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초등맘 10시 출근제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에서 초등학교 1-3학년용 둔 근로자에게 출퇴근 시간을 한 시간 늦춰주거나 한 시간 일찍 퇴근하도록 하는 근로 시간 단축 제도를 1-3개월간 도입할 경우 해당 기

업에 최대 100만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총예산액은 4000만원이며 지원 대상자는 40명 정도다. 경북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한다.

경북도는 지난 2월 15일 도내 10개 중소기업의 대표 및 인사팀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업 의견을 반영해 사업 추진 지침을 확정했다. 절차는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받아 사업수행기관(경북광역세일센터)과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1개월 약정 시 40만원, 2

개월 약정 시 70만원, 3개월 약정 시 100만원의 기업장려금을 지원한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을 경북여성정책개발원(원장 하금숙)이 위탁 운영하는 경북광역세일센터에 사업수행을 맡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경북여성정책개발원 누리집을 참고해 신청서를 경북광역세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 및 정산 절차가 복잡하고 경직된 기업 문화로 인해 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번 사업으로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갑작스러운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있게 기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경북은 지난 2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민간부문에서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 일과 생활 균형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최은정 여성아동정책관은 "초 저출생과의 전쟁 승리를 위해서는 민간기업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마음 편히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소중한 가치

모두의 관심과 협조 속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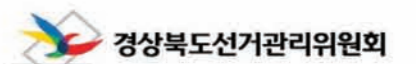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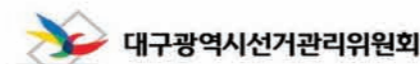
4월 5일(금) ~ 6일(토)  
매일 오전 6시~오후 6시

선거일 투표

4월 10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nec.go.kr)에서 확인





#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 발로 뛰는 현장 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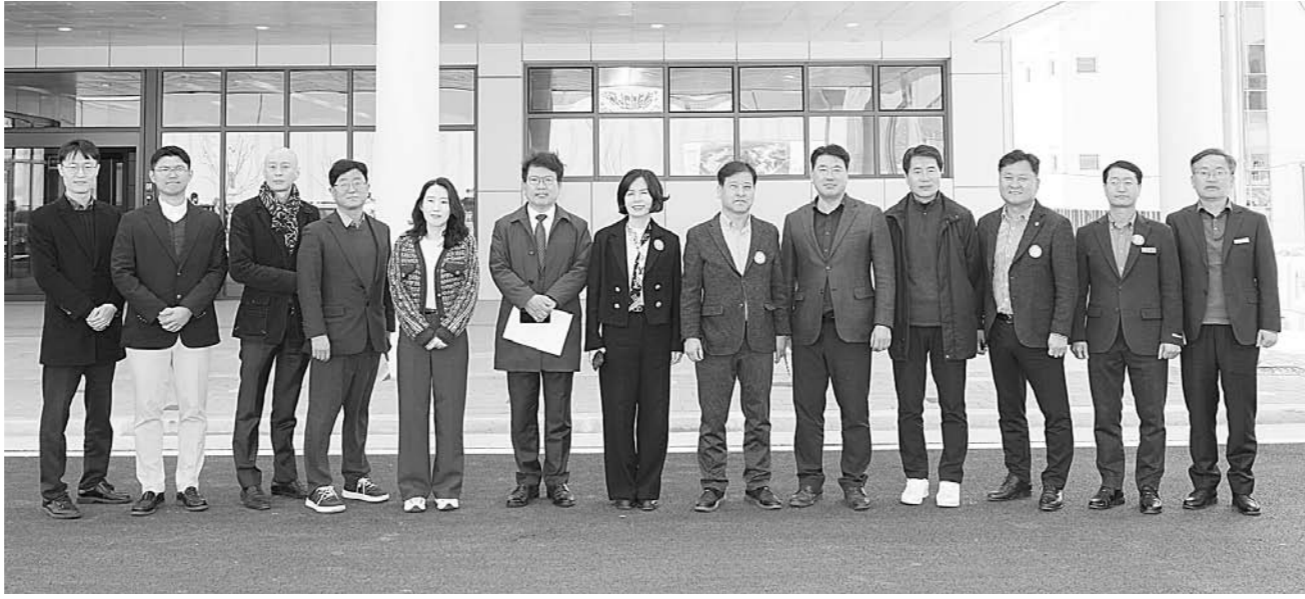
### 소관 현장방문 실시... 현황 체크 탄소소재부품리사이클링센터 등 주요시설 사업계획 일제 점검

경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는 지난 18일 위원회 소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탄소소재부품리사이클링센터와 탐동정수장, 급식지원센터 및 농산물유통센터 등의 시설을 방문해 현황을 점검했다.

‘탄소소재부품리사이클링센터’는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시생산 및 분석 장비 14종을 구축해 미래자동차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재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교육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경제산업위원회는 관계자들과 함께 오는 4월 준공되는 리사이클링센터를 비롯해 경주 e-모빌리티 연구단지 전체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탄소소재 리



사이클링센터, 배터리 공유타이머 통합관리센터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미래차 시장을 선도해나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했다.

탐동정수장에서는 노후화로 인한 각종 기능장애 및 상습침수가 발생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 후 탐동정수장과 건천정수장의 통합 및 전반적인 시설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용수의 공급

을 도모하는 탐동정수장 통합현대화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급식지원센터 및 농산물유통센터에서는 각 센터별 위탁운영 현황 및 지원내용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다.

특히 지난해 공모사업에 따른 토마토 AI 선별기의 설치로 기존 선별기 대비 선별정확도 및 처리속도가 향상됐

다고 보고했다.

이락우 경제산업위원장은 “‘백문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이번 현장방문으로 문서와 구두 보고를 통해서 알 수 없는 현장의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라며 “추후에도 다양한 현장방문을 실시해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영주시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 선임

### 이상근 대표위원 등 총 5명 선임 운영 성과·집행 적정성 면밀 검토

영주시의회는 지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19일에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표위원 이상근 의원과 김철진 교수, 강상호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오는 4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영주시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사하고 영주시장에게 감사의

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상근 의원은 “결산검사는 결산내용의 신뢰성과 재정집행에 대한 회계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함께 위촉되신 결산검사위원님들과 합심해 재정운영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결산 검사가 시정발전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향후 집행기관으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결산서를 제출받아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오는 6월 제28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의결할 예정이다.

윤여성기자bk01410@naver.com

# “포항 미래 위한 클린 정치로 압도적 승리”

### 이상희 국민의힘 예비후보 “흑색선전 등 악습 사라져야” 공명정대·선거법 준수 약속



며 묵묵히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번 선언에는 포항과 울릉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포항, 울릉을 아름다운 정치문화의 1번지로 바꾸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4·10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상희(사진) 포항시남구울릉군 국민의힘 후보가 ‘클린 선거·정책 선거 실천’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지난 17일 ‘클린 선거·정책 선거’ 선언문을 통해 “포항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기 위해 정당당당하게 선거에 임해 반드시 압도적인 승리로 당선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흑색선전이나 아니면 말고 식의 선거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사라져야 할 정치적 악습”이라며 “그동안 본인이 강조한 클린 선거·정책 선거를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 후보는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도덕성, 공직 수행 능력 및 자질 등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시간이 돼야 한다”라면서 “그러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출마한 후보 중에는 자신의 정책이 아니라 상대 후보를 헐뜯고 비방하고 허위 사실까지 유포해 가면서 승리하려는 정치꾼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희 후보는 “지금까지 본인이 지켜온 ‘클린 선거’, ‘정책 선거’ 운동을 실천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포항 시민들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히 약속한다”라며 “그 누가 어떤 중상모략과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우리 포항 남구·울릉군 주민들만 바라보

며 묵묵히 전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허위 사실을 가지고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후보는 포항, 울릉의 깨끗한 선거 문화 실천을 위해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는 공명정대한 정책 선거를 실천 △상대 후보에 대해 그 어떤 비방과 흑색선전을 하지 않기 △공직선거법을 반드시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를 실천 △포항 남·울릉군 주민의 선택을 받아 당선 시 약속한 공약 반드시 이행 등 4가지를 약속했다.

지난 2004년 국회 보좌관을 시작으로 정계에 입문해 서울특별시 민원비서관,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 인사선임행정관, 춘추관장, 홍보기획비서관으로 일한 바 있는 이상희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선대위 비서실 기획실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 정무 2팀장으로 활동하는 등 중앙정치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힘 있는 정치’를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김대영 기자gshin3000@naver.com  
신현기 기자hshin98@naver.com

# 대구선관위, 22대 총선 후보등록 신청 접수... 22·23일 이틀간

### 보궐선거 후보등록 동 기간 접수 선거운동 개시기간인 28일부터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과 오는 22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선거구선관위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도 같은 기간 신청을 받는다.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

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해야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1500만원, 중구·수성구의회원 선거는 200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오는 28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오는 22일 후보자등록이 마감되면 후보자의 기호를 결정한다.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

을 받은 후보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한다.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계제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순으로 정하고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은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순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으로 기호를 결정한다.

한편 5명 이상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과 제20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제8회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

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우선해 부여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시스템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 입후보경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정당·후보자가 제출한 선거공보는 4월 1일부터는 정책·공약마당을 통해 공개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영덕군의의회, 302회 임시회... 군 저출생 문제 공감대 확산

### 배재현 의원 5분 자유발언

영덕군의의회는 지난 19일 하루간의 의사일정으로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영덕군의 재정 운영 전반

을 검사하기 위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배재현 의원이 지난 2월 20일 경북도의 ‘저출생과 경쟁 선포식’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영덕군 저출생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건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속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우리 영덕군도 저출생 극복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덕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맞춤형 매입 임대주택 추진관련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순덕수 의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3월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속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shghks70@com

**성주군**  
SEONGJU GUN

# 사통팔달의성주

동서 3축 고속도로는 새만금에서 포항까지 향하는 국토횡단 시설로  
동서교류 확대에 따른 경제교통의 중심축 역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동서3축 고속도로, 동서교류 확대의 마침표! 성주~대구 고속/도로



# 도, 푸드테크로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 ‘박차’

관계자 대상 지원사업 설명회 625개소 29억 투입, 경영 컨설팅 기기·데이터플랫폼 보급 추진 업소, 경영난·인력난 걱정 ‘뚝’

경북도는 19일 경북도경제진흥원에서 시·군 및 외식업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4일 푸드테크 기반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야놀자F&B와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은 일반·휴게음식점 등 625개소를 대상으로 29억원을 투입해 맞춤형 경영 컨설팅, 디지털 기기보급, 데이터플랫폼 보급, 주방환경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135개소를 대상으로 푸드테크 적용, 식재료 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인사노무, 동선효율화 등 맞춤형 경영 컨설팅을 지원한다.

25개소에는 서빙로봇, 테이블오더,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를 보급한다.

50개소에는 웨이팅, 주문·결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게 데이터플랫폼을 보급하고 마지막으로 415개소는 서빙로봇 등 푸드테크 기기 도입을 위한 시설개선을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외식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추진방향과 컨설팅 추진 방법 및 프로그램 구성, 플랫폼 등 세부 추진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행복점포 육성, 카드수수료 지원, 배달업 운

영 등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시·군 및 경제진흥원에서는 추후 외식업소 모집·선정을 위해 공고할 계획이며 지원자격 및 한도 등 자세한 사항은 시군 및 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영호 복지건강국장은 “외식업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디지털화·IT화가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경영난·인력난 등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외식업소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파키스탄 ‘경제·문화 협력의 손’ 잡다

주한 대사, 이철우 도지사 예방 우호 교류 관계 확충 대한 논의

나빌 무니르(Nabeel Munir) 주한 파키스탄 대사 일행이 지난 18일 경북도-파키스탄 간 우호 교류 관계 확충에 대한 논의를 위해 이철우 도지사를 예방했다.

이날 면담에는 파키스탄인으로서 한국으로 귀환한 김강산 ㈜오션산업 대표도 동석했다.

이번 만남에서 나빌 무니르 대사는 파키스탄 인구의 절반 정도가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경기도와 같은 펀자브(Punjab)주의 이점을 제시하며 경북도와의 우호 교류 협력 체결을 제안했다.

펀자브 주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중북부에 걸친 넓은 면적의 주로서 인구는 1억1000만명 이상이다. 가장 산업화된 주 중에 하나로 화학·비료·기계 등의 공업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한국의 삼성전자가 진출해 있다.

나빌 무니르 대사는 “경북도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새마을운동을 이끌어온 곳으로 파키스탄이 상호 협력해야 할 것이 많은 지역”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경북도의 유학생 비자 정책을 통해 파키스탄의 인재와 산업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발전을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학교기업, 장애학생 자립 배움터로! 취업 연결 꿈터로!”

교육청, 포항명도학교 등 3교에 교당 4000만원씩 운영비 지원

경북교육청은 특수학교 고등학생과 전공과 학생의 진로직업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학교 기업 운영학교 3교(상회학교, 안동영명학교, 포항명도학교)에 교당 4000만원씩 총 1억 2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학교기업은 학교 부서의 일부로 기업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현장 체험 경험과 실습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해 생긴 수익금을 교육에 재투자하는 형태의 활동을 의미한다.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은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 교육 대상 학생에게 특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와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을 위해 특수교육기관에 설치된 수업 연한 1년 이상의 과정을 말하며 학교 기업은 전공과 학생들이 주체가 돼 운영한다.

특수학교 학교 기업 운영은 맞춤형 직업교육으로 장애 학생의 직업 적응



력을 향상하고 현장 실습 운영을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며 산학 연합 협력체 구성을 통한 취업을 제고와 지역사회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에 그 목표를 두고 있다.

학교 기업 운영의 우수사례로 손꼽히는 상회학교 학교 기업 ‘감나무 카페’는 공공기관과 학교, 시민 주거지와 밀착된 도심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포근한 카페 분위기와 장애 학생들이

만드는 음료 이용으로 장애인식 개선과 함께 안락한 주민 편의 제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함을 무한대로 나눈다’라는 뜻의 카페 이름 ‘감나무’는 장애 학생들이 받은 많은 사랑을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안동영명학교 학교 기업 ‘담다’는 학생의 꿈에 투자하는 착한 기업이라는 구호 아래 원두 사업, 보안 문서 파

쇄, 친환경 재생 상품, 운동화 세탁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명 커피’는 지난 2018년 12월 경북교육청 청사 내 문을 연 1호점 에듀카페와 안동시의회에 2호점을 운영하고 있다.

포항명도학교 학교 기업인 ‘다빈’은 ‘도전하는 마음과 노력이 더해지면 꿈을 현실로 이뤄지리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바리스타 체험, 다빈 공방, 다빈 클리닝 다빈 클리닝: 운동화 및 의류를 잘 관리해서 위생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세탁 기술 등의 영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학생에게 지역사회 사람들과 어울려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미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되는 직업적응능력을 길러준다”며 “학교기업이 우리 장애학생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배움터, 취업과 연결되는 꿈터가 될 수 있도록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경북 명품 관광지·상품, 경주에 다 모인다

21~27일 KTX 경주역서 ‘반짝상점’ 24~25년 축제 사진 전시도 열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경북 관광기업 우수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기 위해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7일간 KTX 경주역에서 ‘2024년 경북 관광상품 팝업스토어(반짝상점)’를 운영한다고 밝

혔다.

경북 관광기업의 유통 채널 확장을 위해 코레일유통 대구경북본부와 협력 사업으로 기획된 이번 행사는 경주 벚꽃 시즌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되는 경주역에서 ‘벚꽃 stage in 경북’ 주제로 팝업스토어가 운영된다. 행사는 ‘경북 관광상품 팝업스토어’와 ‘경북도 2024~2025년 지정

축제 14선의 사진 전시 홍보관’ 등 2개 구역으로 구성된다.

1구역인 팝업스토어에는 입점 기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경북관광기업지원센터 입주(협력)기업을 포함한 경북 관광기업 34개 사, 80여개의 △농·특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굿즈 △기념품 등의 관광상품을 선보인다.

구매 고객은 럭키드로우, 행운의 룰렛, 해시태그 이벤트 등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누릴 수 있다.

2구역에서는 경북도 2024~2025년 지정 축제 14선의 사진과 소개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홍보관을 만나볼 수 있다.

김남일 사장은 “이번 행사가 경주는 물론 경북의 관광지와 지역 상품을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타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사업을 통해 관광기업 홍보와 판로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경북개발공사, 고객 중심 경영 ‘通’

고객만족도·경영평가·청렴도 ‘전국 최초 3관왕’

경북도개발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1.68점으로 전국 1위의 쾌거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경북도개발공사 창립 이래 획득한 최고 점수이자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지방공사 중 한 해에 고객만족도 1위, 경영평가 1위, 종합청렴도 1등급을 모두 달성(3관왕)한 기관은 경북도개발공사가 역대 최초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전국 383곳의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를 평가하며 공공기관과의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협력업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만족, 전반적만족 5가지 분야의 만족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재혁(사진) 경북도개발공사 사



장은 “행정안전부 고객만족도 조사 전국 1위는 공사를 경험한 고객이 직접 평가해 준 뜻깊은 결과이자 업무경험이 있는 민원인과 협력업체들이 참여한 설문조사를 통해 서비스환경, 서비스과정, 서비스결과, 사회적만족, 전반적만족 5가지 분야의 대표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경상투데이 10주년

경산시의회  
GYEONGSAN CITY COUNCIL

시

민

을

위

한

열

린

의

회

**시민을 위한 열린 의회**  
**경산시의회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의대증원 2000명 배분 오늘 발표... “비수도권 중심 대폭 배정”

## 의료계 반발에도 정부는 확고 尹 “대학별 교육 여건 감안해 증원 정원 먼저 권역별 배정”

정부가 이르면 20일 전국 의과대학에 증원되는 2000명의 대학별 정원을 발표한다.

19일 총리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전국 의대의 2025학년도 정원을 발표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부총리가 의대별 정원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 의료계의 입장과 달리 2000명 증원 규모를 유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은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늘어난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늘어나는 정원 2000명 가운데 8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고 수도권에는 20%만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의대 정원 배분 발표를 앞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약 28분간 이어진 모두발언 중 절반이 넘는 19분을 의

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쏟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로 강화할 것”이라며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마다 국민이 의사 눈치를 살피며 마음을 졸인다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의료계 일부에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응급의료기본계획 △간호 인력 종합대책 △필수의료 혁신전략 △의료개혁 4대 패키지 △건강보험 종합계획 등을 나열하며 필수의료 강화 의지를 표했다.

정부는 의료계의 주장과는 달리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체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확고한 것(의대 증원 2000명)을 뒤집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생각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뉴스

## 농협직원 기지로 보이싱 피싱 피해 막았다

### 봉화署, 명호지점 A과장에 표창장

봉화경찰서는 지난 18일 보이싱 피싱 피해를 막은 봉화농협 명호지점 A과장에 표창장을 전달했다.

경찰서에 따르면 A과장은 업무 중 고령의 어르신인 “필요한 곳에 쓴다”라며 다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사용처를 물었으나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신속하게 112로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김주현 경찰서장은 “평소 농협 측의 보이싱 피싱에 대한 사전교육과 직원들의 관심이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냈다”라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서 저금리 대출을 빚자 현금을 요구하면 보이싱피싱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취원 기자 jhy4430@hanmail.net

# 총선 코앞에... 안동·의성 선거구, 잇단 고발전으로 ‘얼룩’

## 특정 예비후보자에 유·불리 기사 게재한 신문 배부 혐의 선거사무소 외 장소서 선거운동 목적 유사 기관 이용 달미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오는 4월 10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북도 내 각 선거구에서 선거운동 관련 선거구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씨를 19일 의성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신문의 발행인으로서 올 3월경, 예비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후 평소보다 2배가량 많은 부수를 발행해 해당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구역까지 확대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도 유사기관 설치 혐의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관련자 11명을 지난 18일 경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주된 혐의는 신고된 선거사무소 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한 것과 해당 장소에서 전화 및 SNS 홍보인력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호소하는 등의 활동을 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관련 위법 발생을 경계하며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외영 기자 p04140@naver.com



## “어떠한 상황·경우에도 학생 안전 최우선”

### 경주교육청·경주경찰서,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경주교육지원청과 경주경찰서는 19일 현곡초등학교 정문과 후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학교, 교육지원청, 경주녹색어머니회, 경주경찰서, 경주재향경우회, 경주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 50여명이 참여해 학생 및 운전자, 보행자에게 홍보 물품을 나눠주고 교통안전 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등굣길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홍보했다.

경주교육지원청은 매일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경주경찰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시설물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취약 구간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스포츠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권대훈 교육장은 “어떠한 상황과 경우에도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며 학생 대상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작은 위험요소도 방지하지 말고 즉각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봉수 경주경찰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단속, 시설개선을 강화하는 등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 건설기계 주기장 위반 퍽퍽마! 상주시, 주 1회 이상 야간단속

상주시는 건설기계 주기장이 아닌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주변의 도로변에 주기해 차량 소통 방해 및 소음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건설기계 주기장위반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덤프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의 무분별한 불법주기가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관계 공무원 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주 1회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건설기계를 주기장에 주기하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주기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단속으로 인해 최초 1회 적발 시 경고장 발부 및 주기장 이동 조치를 명하고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과태료(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이상 30만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임찬원 기자 changwan12@naver.com



## 의성군, 공공의료기관과 연계·협력 ‘활발’

의성군은 지난 15일 의성군 보건소 대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 3곳(철곡 경북대학교병원, 안동의료원, 대구의료원)과 함께 2024년 제1차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퇴원환자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성군의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 각각의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 의료사업에 대해 공유하며 의료·돌봄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성과 이용자원의 연계·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또한 공공의료기관과 의성군이 의료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으며 향후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의 전국화를 대비한 농촌지역의 통합지원 모델 구축을 위해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의료기관과의 활발한 연계·협력으로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의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 power5151@naver.com

## 월성3호기 원자로 정지... 차단기 불에 타

월성 3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kW급) 차단기가 불에 타 19일 오후 12시 9분께 원자로가 자동정지 됐다.

월성원자력본부에 따르면 현재 원자

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세원인을 조사한 후 설비를 정비할 예정이다.

서경규 기자 seoul1411@hanmail.net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팀” 제070604-중-326호

#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질환을 한방으로 치료한다

## 장정불로단(壯精不老丹), 하루 2번 간편복용으로 중년 남성의 고민 해결

고개 숙인 중년 남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조루·발기부전·전립선 질환·만성피로 등 여러 가지 남성 질환을 위한 한방 치료법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어 화제다. 강남 논현동에 위치한 강남행복한의원에서 처방하는 장정불로단이 바로 그것.

장정불로단은 <만병회춘> 고전에 나온 연령고본단(延齡固本丹) 처방을 가감하여 산수유, 구기자, 맥문동, 천문동, 복분자, 파고지, 숙지황 등 20여 가지의 약재로 처방한 약이다. 이 약은 중년 이후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다스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소모된 정기신혈 진액의 원천을 보충해 준다.

이 원장은 “과도한 업무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와 인스턴트식품의 섭취, 운동 부족, 흡연과 음주 등으로 중년의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며 “매사에 의욕이 없고, 피로와 권태를 호소하며, 성적 자신감까지 잃은 남성에게 큰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도의 정신활동으로 스트레스와 만성피로를 겪고 있는 전문직 남성들에게도 입소문을 통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소모된 기혈진액을 보충, 활기차고 건강하게**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세포의 생리 활성이 떨어지면서 신경계와 내분비계의 기능도 약해진다. 이에 따라 신체조직과 장기의 전반적인 신진대사기능이 저하되고, 피부와 모발 및 근육은 건조해지며, 뼈도 성글어진다.

결국 몸의 여기저기가 아프고, 의지대로 움직여지지 않으며, 정신적인 피로까지 호소하게 된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생명현상의 기본 물질인 정기 신혈 진액의 소모로 보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 치료는 소모된 기

혈진액을 보충해줌으로써 세포와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엔진을 다시 가동시키는 것이다. 장정불로단을 복용 후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만성피로와 성욕감퇴의 경우 몸이 가벼워지고 의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며, 발기부전 또한 개선된 사례가 많다. 특히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현대 남성들의 경우, 생기와 활력을 되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성피로, 발기부전, 조루, 성욕감퇴, 노화 등에 효과적**

한마디로 장정불로단은 우리 몸 전체에 생기와 원기를 불어넣는 한방 보양제라고 할 수 있다. 만성피로에 지친 남성, 발기 부전이나 조루, 정력 부족을 호소하는 남성에게 효과가 있

으며, 흰머리, 잔주름, 피부 탄력 저하, 성욕 감퇴 등의 노화 현상도 개선시킬 수 있다. 또한 중풍 후유증의 병후 관리나 정액 부족 등으로 인한 남성 불임에도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잘 낫지 않는 전립선 질환의 경우 이수비료탕으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정불로단은 일반 탕약이 아닌 환약으로 되어 있고, 하루에 2번 복용하기 때문에 무척 편리한 것이 장점이다. 특히 체질과 나이에 관계없이 복용할 수 있고, 부작용이 적은 한방치료법이기에 때문에 중년 남성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강남행복한의원 ☎ 02-512-6510  
www.kangnamh.co.kr





# 경주, 시민 주도 탄소중립 실천 의지로 '활활'

### 2050 탄소중립 동참·2025 APEC 성공개최 위해 선포식 가져 미래 최첨단·친환경 '경주 이미지' 전 세계인 각인 효과 기대

경주시는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정책 동참과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 다음달 22일 제54회 지구의 날에 맞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선포식'을 개최한다.

시는 이를 통해 최첨단 미래 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물론 친환경 도시 '경주'의 이미지를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극복과 지속 성장을 위한 목표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줄여 오는 2050년까지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들자는 범지구적 의제다.

시는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정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탄소중립 실천 선도도시 심포지엄'에서는 탄소 흡수원 확충, 탄소중립 상시교육, 시민실천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또 같은 해 12월 개최한 '제13회 경주시민원탁회의'에서는 7개 그룹 100여명이 참석해 △매장 실내온도 지키기(소상공인) △TV 사용시간 줄이기(시니어) △밥 보온시간 줄이기(다문화가정) △찾아가는 탄소중립 시민교육 실시(전업주부) △탄소중립 시민위원회 구성(환경단체) △겨울철 휴경기

꽃거름작물 재배(농업인) △탄소중립 실천가 양성(교육인) 등의 연령·계층·직업별 세부 실천 방안을 도출했다.

이같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 방안 도출에 힘입어 경주시는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41억원) △경주 그린뉴딜 천연숲길 조성(665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93억원)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60억원) 등 확대 실천방안을 내놨다.

특히 경주시가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용역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운영 △오는 2026년 경주시 기후환경교육센터 설립 등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수립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주시는 탄소중립 실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중립 시민 실천운동'도 펼치

고 있다. 또 지난해 '심포지엄'과 '시민원탁회의'를 통해 도출한 '탄소중립 실천 리스트' 1만부를 배포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늘릴 계획이다.

특히 탄소중립 서약서와 실천리스트를 배부하면서 시민 대상 실천방법 홍보는 물론 시민들의 실천의지를 보다 확고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민관산학 주도 탄소중립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관별 역할을 부여하면서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주낙영 시장은 "기후위기 속에 탄소중립 실천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경주시민도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실천해 보다 나은 미래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건천 천포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

### 지적재조사위 열어 41필지 상정 연말까지 징수·지급 마무리 계획

경주시는 2021년도 사업지구인 건천천포2지구에 대한 조정금 이의신청 심의·의결을 위해 지난 18일 시청 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정된 심의·의결 대상은 건천2지구 조정금 이의신청 34건 41필지로 6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안전으로 상정하게 됐다.

위원들은 실제 이용현황과 주변 환

경,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감정 평가한 후 조정금의 적정 여부를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정사항을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올해 말까지 징수·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건천을 천포리 일대를 기준으로 실시한 천포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지난 2021년 사업을 시작해 2023년 6월 최종 572필지로 경계가 확정됐다.

이후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 의뢰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통보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市 홍보 전문가들,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힘 보태'

### 황리단길서 경주 개최 당위성 전파 바가지 요금·호객 근절 분위기 확산

경주시 홍보담당관 직원들이 홍보자문위원회, SNS알리미와 함께 지난 18일 황리단길 일원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친절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APEC 정상회의 유치를 걸맞은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친절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40명의 참석자는 '당신의 미소가 경주의 얼굴입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피켓과 어깨띠를 두르고 지역의 핫플레이스인 황리단길에서 관광객과 상가 직원들에게 리플릿을 나눠주며 유치 당위성을 알렸다.

또 친절, 청결, 신용, 안전 등 관광선진화 4대 실천과제를 홍보하며 바가지



요금과 호객행위 없는 친절하고 깨끗한 손님맞이 분위기도 확산시켰다.

특히 이날은 경주시 공식 유튜브(와썹경주) 촬영을 위해 APEC 경주 유치 기원 데드리프트 챌린지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행사장을 오가는 방문객들이 혼자서 들 수 있는 데드리프트 무게를 제시해 도전 성공 시 누적으로

2025kg를 채우는 이벤트로 현장은 웃음과 환호로 가득했다.

조현우 홍보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유치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친절 캠페인, 기초질서 지키기 등 선진시민 의식 캠페인을 홍보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철용 홍보담당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손님맞이 친절 캠페인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열기와 호응을 바탕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APEC 정상회의의 경주 개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치매환자 대상 '조호물품 택배 서비스' 개시

###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간 제공

경주시는 치매환자 돌봄 조호물품을 각 가정에 배달하는 택배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무료 제공되는 조호물품은 기저귀 및 물티슈 2가지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조호물품 지원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1년이며 택배서비스는 한 번에 4개월분을 제공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년마다 관련 서류 제출 시 지원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치매안심센터(054-760-295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주시는 치매환자 지원을 위해 맞춤형 사례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실종예방 서비스, 치매공공후견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이 환자를 돌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치매환자와 그 가족들의 어려움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 비 소식에 연기... 29일 개막

### 공연·라이트쇼 등 볼거리 가득

경주시는 기상청의 비 예보와 벚꽃 개화가 늦어짐에 따라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를 한 주 연기해 오는 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19일 경주시에 따르면 당초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

였으나 축제기간 비가 올 경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서커스, 버블, 마술 등의 거리예술 공연과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벚꽃 라이트쇼 이벤트가 취소된다.

특히 축제장 내 친환경 자재는 비에 취약하며 전기선 등은 강수 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따른

다. 시는 축제일정 변경으로 벚꽃이 만개한 상황에서 행사가 펼쳐짐에 따라 축제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대릉원돌담길 벚꽃축제는 △공연(벚꽃 거리예술로, 벚꽃 라이트쇼) △벚꽃 포토존&힐링쉼터 △친환경 프로젝트 △돌담길 레스토랑, 벚꽃 마켓

△벚꽃 놀이터, 타투&무료인화사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3일간 진행된다. 또 도보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대릉원돌담길 일원(황남빵 삼거리-첨성대 삼거리)이 축제 기간 전 방향 교통을 통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봄꽃과 문화유산이 어우러진 경주로 오셔서 벚꽃 비를 맞으며 완연한 봄의 기운을 마음껏 즐기다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wba112@daum.net

## 4월 한달 반려동물 광견병 예방 '무료접종'

### 전화 접수 후 물량 소진 시까지

경주시는 반려동물의 광견병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무료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견병은 감염 동물에게 물리거나 핏물 상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이므로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접종대상은 시민이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며 백신접종 부작용 등 기타사항에 동의한 보호자에 한해 접종이 진행된다. 규모는 백신 500마리 분이다.

신청은 물량 소진 시까지 시청 축산정책과 동물보호팀(054-760-2883)으로 전화 접수하면 된다.

접종은 오는 4월 한 달간 평일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천북 신당에 위치한 동물사랑보호센터에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지난 2013년 이후 광견병 발생은 없지만 발생 시 뇌염, 신경 증상 등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대부분 사망하게 된다"며 "봄철 반려견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만큼 이번 접종을 통해 반려견의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경규 기자seoul1411@hanmail.net

경상투데이 10주년





## 꼭지가 달렸습니다! 청송사과 fresh!

11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청송사과는 올해부터 꼭지를 치지 않습니다. 꼭지 달린 사과는 더욱 신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 꼭지를 치지 않으면 일손이 크게 절감돼 전국적으로 연간 660억원의 인건비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족하는 그날까지 청송사과는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대한민국 사과의 표준, '명품' 청송사과.

청송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종두

청송군 산림조합 조합장 조승래

남 청 송 농 협 조합장 조 옹 국

현서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윤춘헌



# 대구, 녹색교통 안전한 이용 환경 정착 '최선'

### 자전거·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운행 관리실태·시설 점검 나서 민관 합동 홍보·캠페인 등 강화 사고 다발지 개선·보관대 설치

대구시는 녹색교통수단(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전반에 대한 운행 관리 실태 및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해 녹색교통수단의 안전하고 올바른 이용 환경 정착에 힘쓴다.

시는 최근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의 이용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 급증과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인한 시민들의 통행 불편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홍보·단속 및 시설별 안전점검을 시기에 맞춰 연중 실시한다.

이를 위해 녹색교통 안전점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녹색교통수단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점검·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대구시는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객이 급증하는 봄·가을철을 대비해 자전거도로 및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노후·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보수·정비를 통해 자전거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기간 방치된 자전거는 상·하

반기(4월, 10월) 일제정비를 통해 이용자 및 보행자가 함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무단방치 문제가 심각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서는 상시 단속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늘어나는 계절(4-5월, 10-11월)에는 집중단속 기간을 정해 시간 내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해 적극적인 강제 수거로 대사업자의 건전한 PM운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합동의 단속과 캠페인을 주기적(분기별 1회)으로 추진해 이용자의 안전불감증

에 경종을 울리고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한다.

한편 시는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전거도로와 관련 시설의 확충, 자전거 등의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및 안전시설 정비, 보관대·거치대 설치 등을 통해 녹색교통수단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김대영 교통국장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통해 녹색교통이 시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푸듯한 교통수단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건보 대구경북본부, 혈액수급 안정화 '앞장'

### 헌혈나눔 히어로즈 행사 진행 노·사·고객센터 직원들 '동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본부는 지난 15일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노·사, 고객센터 근무인력 50명이 참여한 '헌혈나눔 히어로즈'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헌혈나눔 행사는 노·사·고객센터 근무인력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이 기부한 헌혈증은 백혈병 환우 및 수술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공단은 상·하반기 '헌혈나눔주간'을 운영해 지역의 혈액보유액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김기형 본부장은 "헌혈나눔 히어로즈 행사 참여로 혈액수급 안정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정기적인 헌혈 참여로 혈액수급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대구시, 전국 최초 '의료현장 중심 뇌질환 클러스터' 구축

### AI기반 의료기기 지원 사업 회의 산·관·연·병원 간 협력 기반 조성

대구시는 19일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착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대구시와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DIP)이 공모 준비하고 있는 'AI기반 뇌발달질환 디지털 의료기기 실증지원 사업'의 유치를 위해 관련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 사업은 지역 SW 진흥기관인 대구 디지털혁신진흥원(DIP), 국내 유일 뇌 연구 국책연구소인 한국뇌연구원(KBR), 디지털헬스 및 바이오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대경권연구본부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모 준비 중이며 사업 선정 시 오는 2026년까지 총 300억원의 예산이 뇌발달질환 분야 디지털 의료기기 개발 및 실증을 위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위해 뇌진동·수면장애 플랫폼 개발기업인 LVIS사와 지역 상급병원 6개소(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대구의료원)가 협력해 전국 최초 '병원 실증

중심의 뇌질환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지역 특화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뇌발달질환자의 급증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의 가중 및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로 인해 생겨나는 지역민의 '의료 난민' 등의 문제점을 해소해 대구가 디지털 의료기기 메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은백 미래혁신성장실장은 "사업 유치에 성공해 지역기업이 개발한 디지털 의료기기를 지역병원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하고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의료공백 속에도... 정신응급 위기 신속 대응

### 시, 수성중동병원 2병상 추가 도입

대구시는 지난 18일부터 정신응급 입원병상을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병상에서 수성중동병원 2병상을 추가해 정신응급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정신응급 입원병상 지정의료기관은 24시간 상시 응급입원이 가능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해 야간·공휴일 진료가 이뤄져 자·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 및 자살시도자의 즉각적인 위기개입과 정신응급 입원치료가 가능하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1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

민의 안전을 위해 수성중동병원 2병상을 추가로 지정했다.

추가 1병상 공모 예정이며 총 4병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신응급 입원병상 확대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이송·치료 지원을 막고 조기 개입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찰(112), 소방(119), 24시간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1577-0190)로 정신과적 위기상황이 접수되면 환자 상태를 평가해 정신응급 입원병상 지정의료기관으로 의뢰하게 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 응급입원과 치료를 받게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 만성질환 예방... 달성보건소 "10월까지 건강강좌가 무료"

### 매일 셋째주 금요일 1시간 진행

달성군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건강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10개 중 4개는 심뇌혈관질환에 해당하며 관련 사망자 수는 전체 사망의 15.8%를 차지

하고 있다.

해당 질환의 환자 수는 인구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늘어나며 이로 인한 지역사회 내 질병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돼 조기 발견 및 전문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달 주민건강강좌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관리 및 예방법 등'의 주제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

질혈증 진단 및 분류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수칙 △심근경색, 뇌졸중 증상 등으로 진행됐다.

권선영 소장은 "만성질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만성질환의 선제적 관리가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요구도에 맞는 전문 건강강좌를 기획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보건소는 지역주민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매월 셋째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한 시간 동안 다양한 건강관리 주제로 건강강좌를 개최할 계획이다.

주민건강강좌는 건강관리에 관심 있는 군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dalseong.daegu.kr)를 참고 또는 달성군보건소 통합건강관리실(053-668-3958)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장종찬 기자gst3000@naver.com

## 군위전통시장 상인회, 구성원 역량 강화 '힘'

군위전통시장 상인회는 시장경영패키지사업의 일환으로 상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총 3회로 구성돼 진행 중이다.

1차 교육은 경영컨설팅 전문가인 강승묵 이원연구소 대표가 전통시장 활성화 5대 핵심과제와 경남 김해 삼방시장의 우수사례 등을 소개했다.

2차 교육은 광주안 지역순환센터 대표의 협동조합설립을 통한 상인 역량 강화교육과 대구 강북소방서의 소방안

전교육이 진행됐다.

오는 25일 3차 교육은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에 성공한 진해 중앙시장을 방문해 상인회 미팅 및 상권활성화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군위전통시장 상인 30여명 이상이 교육에 참석해 그동안 전통시장으로서의 발전을 위해 개개인이 노력할 수 있는 역량 강화 방안이나 다른 시장의 사례를 어떻게 본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열띤 토론을 가졌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살국유사의  
대중교통  
군위

# 대구광역시 군위군

## 파워풀 대구와 함께

###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



# 의성군, 깨끗·스마트한 하수도 관리 '엄지척' 문경시 "도시재생에 청년 의견 수렴할 것"

### 환경부 시업사업 2개 분야 추진 ICT기술 기반 빅데이터 활용해 수질 개선·안전사고 예방 한몫



의성군은 깨끗하고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를 위해 환경부 시업사업으로 전국 13개 지자체가 선정돼 추진 중인 '스마트 하수도사업' 중 2개 분야(하수처리장, 하수도자산관리)에 선정돼 사업 추진 중에 있다.

먼저 스마트하수처리장은 의성하수처리장에 적용해 지난해 국비 등 32억 원을 투입해 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시험운전 중이다. 스마트하수처리장은 하수처리과정에 자동계측기를 설치하고 정보통신(ICT) 기반으로 실시간

모니터링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적의 사 결정으로 방류 수질 개선과 에너지 절감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감지 및 기계 이상 신호를 감지해 알려주는 계측장비도 설치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시설유지관

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스마트 하수도자산관리 시스템 구축사업도 동시 추진하고 있다. 국비 등 13억원을 투입해 의성군 전체 하수도 시설에 대한 자산을 조사 중에 있으며 올해 시스템 구축과 자료 입력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스마트 하수도자산관리사업은 하수 도시 시설 자산 목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서 자산의 이력 관리와 위험 요소 파악, 잔존 수명 예측 등 선제적 대응 가능한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예산의 계획적인 반영과 효율적인 사용으로 하수시설의 내용연수 증가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수 군수는 "깨끗하고 스마트한 하수도 관리에 의성군이 선두에 앞장 서고 있으며 군 전체 하수도시설을 스마트화해 하수도시설의 유지관리 효율을 높여 나감으로 군민들이 하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발 앞선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가치살자협동조합과 MOU 체결 지역 고유자원 발굴·소통 '최선'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가치살자협동조합은 지난 12일 청년들의 도시재생지원사업 참여와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로 지역 고유자원 발굴 및 청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유기적 소통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합 1:2 동 중심시가지지형 사업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창업동아리 지원 사업 및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프

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박현희 대표는 "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주도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로컬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윤효근 문경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활동하기에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다. 센터는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지역 사회를 견인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로컬 브랜딩 및 지역활성화를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예천군, 내달부터 일자리 발굴 공모 접수

### 군청 방문·이메일로 접수 대상 선정 시 100만원 지급

예천군은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을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 직접 일자리, 지역자원을 활용한 특화형 일자리 사업, 고용 촉진 분야 등의 주제로 진행하며 군은 군민의 긍정 참여를 확대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발굴 수렴해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일자리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디

어 접수는 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CCC3378@korea.kr)로 할 수 있다.

사업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 검토 후 평가 위원회 서면 심사를 통해 오는 5월 중으로 23개의 우수 제안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상은 대상 100만원(1명), 최우수상 50만원(2명), 우수상 30만원(3명), 장려상 10만원(5명), 노력상 5만원(12명)이 예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최영종 지역경제과장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아이디어 발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박외경 기자p04140@naver.com

## 해외 유튜버와 '관광거점도시 안동'의 매력 전 세계에 널리~

### 연간 8편의 콘텐츠 제작 지원 먹방·팬투어 등 숏폼 업로드



안동시는 세계인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광도시 안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해외 유튜버 시청자를 위한 관광 홍보 콘텐츠 8편을 제작 지원한다.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제작 지원은 중국·대만, 일본, 동남아권, 북미·유럽권 등 4개 권역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활동하는 유명 유튜버가 안동 구석구석을 돌며 다양한 매력을 알릴 계획이다.

기존 브이로그 형식뿐만 아니라 CM 송 뮤직비디오, 먹방, 팬투어(유튜버+팬), 랜덤 플레이 댄스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되며 숏폼으로도 업로드된다.

첫 번째로 안동을 찾은 유튜버는 △일본인 대학생 커플 에이시토사나(에이시와 사나)이다.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2024 안동벚꽃축제' 축제장과 월영교, 하회마을을 찾

아 알콩달콩 데이트하며 봄축제의 낭만을 전하고 맛집과 카페를 소개하며 일본 MZ세대의 마음을 들뜨이게 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4월 초엔 △숏폼 1억뷰를 자랑하는 화제의 음악 프로듀서 냅킨

스(Napkins Music)가 안동 관광을 테마로 CM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다. 냅킨스는 북미나 유럽 등 영어권에 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그 후 오는 10월까지 매달 안동의 관광지와 로컬 맛집, 축제, 문화·예술 등

을 주제로 한 새로운 콘텐츠가 제작·공개돼 안동역과 서울역을 잇는 KTX의 개통으로 접근성이 한층 높아진 안동으로 해외 관광객을 유혹할 것으로 보인다.

오명수 기자oms727@nate.com

## 영양군, 봄철 산불예방 '총력'... 불법 소각 무관용 대응

### 진화대 33명·감시원 78명 운영

영양군은 건조한 봄철을 맞아 산불 예방을 위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3개 조 33명, 읍·면 산불감시원 78명을 선발해 운영하는 등 산불 없는 영양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산불은 주로 2월~5월 중 영농폐기물, 생활폐기물 등을 소각한 불씨가 산으로 번지며 주로 발생하는 만큼 군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영양군 산림복지과에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줄이기 위해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에는 실화자에 대해 끝까지 조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산림 100m 이내에서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무관용 대응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양군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동원해 수시로 지역

내 산불위험지역을 예찰 중이며 산별 계도와 예방활동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께서 항상 조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며 "산불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경태 기자tae66611@naver.com

## 봉화춘양초,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선정

### 연말까지 예방 교육 '집중'

봉화군보건소는 지난 2월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 운영 사업을 신청해 이달 춘양초등학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해 이달 18일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서 현장 방문 지원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이날 컨설팅에는 경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춘양초등학교, 봉화군보건소 3개 기관이 참석했다.

경북형 감염병 예방학교는 오는 12월까지 운영하며 월별 감염병 주제에 따라 예방수칙 교육을 실시하고 마스크 꾸미기, 비누 만들기 등 직접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고자 한다.

또한 매월 감염병 예방 소식지를 교내 게시판에 게시해 학생들이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예방수칙 등을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박현국 군수는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많은 시간 동안 집단생활을 하는 감염병에 매우 취약한 시설이므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한 감염병 예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영위 기자jhy4430@hanmail.net



# 준비된 땅 상주!

입지, 교통, 인프라, 탁월한 미래가치까지 상주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군사수도 건설을 위한 모든 것이 준비된 군사시설 최적지입니다.

##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군사시설 최적지 상주!

### 최적의 입지와 교통

국토 중심부에 위치하여 전국 2시간 이내의 접근성, 중부내륙철도 개통(예정)으로 더 빨라진 KTX역세권

### 원스톱 지원과 풍부한 인프라

이전사업 TF팀의 원스톱 지원과 교육, 의료, 관광, 문화, 일자리까지 부족함 없이 누리는 민군상생협력타운 건설

### 군사훈련 최적지

너른 평지와 저렴한 공시지가, 다양한 지형을 조화롭게 갖춰 전문적인 훈련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부지

### 결집된 유치 의지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주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사시설 이전 유치 홍보활동 전개





# 경북 중심 꿈꾸는 구미... 미래 발전 방향 제시

### 도, 2040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람·자연 공존 첨단도시 설정 목표인구 49만·생활권 개편 등 육아·주거 등 부문별 계획 수립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이 지난 14일 경북도에서 최종승인됐다.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은 구미시가 경북의 중심도시로의 발돋움을 위한 미래 청사진을 담은 구미의 미래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시민참여단, 주민공청회, 구미시의 회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1월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최종 승인을 받았다. 도시 미래상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첨단 미래도시 구미’로 설정하고 오는 2040년 목표인구는 49만명으로 시가화예정용지는 1만1568km<sup>2</sup>로 계획했다. 도시공간구조는 대구경북신공항 개항에 따른 신공항 연계 발전축을 설정하고 1도심, 3부도심의 공간구조 설정과 함께 강서, 강동, 북부권 3개 생활권의 개편으로 구미시가 50만 대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구축했다. 반도체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산

업계획과 신공항 시대를 대비한 교통 계획,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한 도심 및 주거환경, 환경보전 및 관리, 도시경관 및 공원·녹지 계획 등 장기 비전을 담은 부문별 계획을 수립해 구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의 총괄 관리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 사업을 유도하고 도시개발사업 미시행 부지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통해 지역의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기관에 신청할 계획이다.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 운영 지침은 민간개발 사업 시 △용도지

역의 변경을 포함하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적용되며 추후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한다. 김창호 시장은 “2040년 구미 도시기본계획으로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 구미시가 경북의 대표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도내 최초로 시행되는 ‘사전협상 운영 지침’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박의분 기자ub0104@hanmail.net

# ‘아이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 만든다

### 도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행복센터·온라인 등지서 신청

성주군은 경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함에 따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경북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을 추진한다. ‘경북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 기업체, 군민 등 성금 모금을 희망하는 자라면 누구나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계좌(농협 705-01-190814 또는 대구 505-10-116204-8(경북공동모금회))로 입금하거나 군청 주민복지과,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성주복지플랫폼(sj-welfare.or.kr)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성주복지플랫폼’은 군민들의 복지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고 모두가 쉽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성주형 복지 정보 사이트’로 ‘경북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 관련 정보도 성주복지플랫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병환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저출생극복 성금모금 캠페인에 동참해 살기 좋은 복지성주, 낳을수록 더 행복한 성주를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 상주노인복지관-예천시니어클럽,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합심’

### 노인복지 증진 위한 MOU 일자리 인프라 구축 등 협력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과 예천시니어클럽은 지난 14일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 및 노인 사회활동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업무 상호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수행 및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을 도모해 상호 공동 발전을 목적으로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관 간의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과 노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수요처 연계 및 지원, 사회복지 증진과 노인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적극 협력을 목표로 했다. 이두환 상주시노인종합복지관 관장



(승려 남경)과 천정은 예천시니어클럽 관장(승려 덕기)은 “이번 협약은 기관 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어르신의 역량을 활용한 사회활동을 창출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양 기관이 함께 양질의 노인 사회참여 환경조성과 활성화를 통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 김천시, 목재 이용 활성화 위한 세미나 호응

### 관련 종사자 소득 향상 ‘일조’

김천시는 산림조합과 함께 지난 18일 산림 사업법인(시공사)과 엔지니어링업체(설계·감리)를 대상으로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는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탄소 이용 저감 대책의 하나로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산림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임업후계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올해는 산림사업법인과 엔지니어링업체를 대상으로 각 단체의 역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특히 세미나에 참석한 김천시 산림복지과,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들은 산림청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에 맞춘 목재 이용 활성화, 친환경 목재생산, 조립, 숲 가꾸기 사업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토의를 했다. 더불어 증대해처리법 확대 시행(2024년 1월 27일)과 관련 안전한 산림사업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도 진행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김천시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 지역발전과 임업 경영자와 산림사업법인의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고령,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본격 운영

### 봄철 파종기 대비 대응 강화

고령군은 공개 모집을 통해 최종 선정된 ‘2024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26명)’을 지난 1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봄철 파종기를 맞이해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한다. 군에서는 야생동물 포획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피해방지단 안전교육을 실시했으며 피해방지단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한 멧돼지 집중 포획 △멧돼지 출몰 등 인명 피해 우려상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신고 접수 시 구제 등의 활동을 한다.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읍·면사무소, 군청 환경과로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피해방지단이 현장 순찰과 포획 활동을 통해 운영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44마리, 고라니 704마리를 포획했고 이달 현재까지 163마리의 야생 멧돼지를 포획해 봄철 파종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남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도 비롯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급도 병행해 추진하고 피해예방시설은 피해가 극심한 수확기 전에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김일호 기자hoya1515@daum.net

# “평생교육, 삶의 활력소로” 칠곡 동명면, 주민 강좌 개강

“동명면 복지센터에서 드론 수업을 듣다니 너무 신기해요!”. 지난 18일 칠곡군 동명면 평생학습복지센터에서 열린 ‘2024 동명면 평생학습 개강식’에 참석한 드론 수강생의 생생한 소회다. 이날 지역주민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개강식은 인기 강좌인 ‘장구난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신규 강

좌인 드론, 가족공예를 포함한 16개 교육과정 강사 및 강좌 소개, 축하, 기획특강 순으로 이어졌다. 박기덕 경북대학교 교수의 ‘100세 건강! 스트레칭으로 지켜요!’ 주제로 진행된 기획특강은 평소 간단한 운동처방을 통해 예방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강연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정석호 면장은 “주민 생활에 평생교육이 삶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홍달 기자song081700@naver.com

**조방낙지**  
대표 손 일 희

경주시 중앙로29번길 13  
☎ 054-775-3002

**(주)강산투어**  
대표 최 병 오

경주시 원화로 372  
☎ 054-753-7777

**공간종합주방**  
대표 양 주 석

경주시 알천남로 128  
☎ 054-774-1444



# 포항, 시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로 '삶의 질 UP'

### 다양한 고용 인프라로 지원 확대 구인·구직 매칭 프로그램 운영 1대 1 컨설팅·취업상담 등 제공

포항시는 올해 다양한 고용지원 인프라를 통해 시민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일자리종합센터 △자투리시간거래스 △취업지원센터 등 고용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해 1만300여명에 대해 취업 알선을 진행해 5130여명의 취업을 성공시키며 바 있다.

일자리종합센터 (054-280-3275, 3276)는 포항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업체 및 구직자 등록(워크넷 홈페이지)을 통해 취업을 알선하고 구인·구직 상담 및 이력서 작성, 기업 맞춤형 고용알선 등 진로 코칭을 제공한다.

일자리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포항시 홈페이지 '일자리정보(민간)' 페이지에서는 구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채용 형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투리시간거래스 (054-273-1919)는 지난 2018년 포항시에서 전국 최초로 설치해 운영 중으로 주부, 청년, 노인 등 자투리 시간 활용이 가능한 구직



자를 파트타임제 직원이 필요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매칭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구인·구직자가 근로 가능시간, 원하는 업무, 보수를 포항시 홈페이지 내 자투리시간거래스를 통해 등록하면 실시간으로 양방향 매칭을 시켜준다.

여유 시간대 활용이 용이한 구직자와 인력의 탄력적 운영을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해마다 자투리시간거래스를 통해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과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포항의 구직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 (054-280-3274)는 취업·전직을 필요로 하는 중·장년층의 비자발적 실직자 및 청년 실업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알선 및 재취업을 지원하며 대면·유선을 통한 1대 1 맞춤형 컨설팅, 무료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이밖에 포항시는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중소기업 고용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및 일자리 공감페어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 상·하반기별 특색을 갖춘 내일 있는 일자리 박람회 개최를 통해 맞춤형 취업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강덕 시장은 "민생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활기차게 일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현기자 hshin98@naver.com

# 영천, 발 빠른 국비 확보로 신성장 동력 마련 내년도 투자예산 확보·시책 발굴 전략회의... 정책 분석

영천시는 19일 최기문 시장 주재로 국·소장과 전 부서장이 함께 모인 가운데 '2025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및 신규시책 발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영천시는 정부 정책방향과 시 현안사업을 연계한 신규·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정부 예산 순기별 대응방안과 부서별 예산 확보 전략방안을 공유하는 등 내년도 총 88개 사업, 총 1887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보고된 주요사업들을 살펴보면 △대구도시설도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영천투자선도지구 진입도로개설공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민생안정과 신성장 산업 발굴에 중점을 둔 사업들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영천시는 중앙부처를 집중적으로 방문해 사업 타

당성을 건의하고 국가 재정정책 분석,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 강화, 각종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체계적 대응에 나서 시정 현안 해결과 새성장 동력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결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국비 건의사업뿐만 아니라 시민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해 새롭게 추진할 시책까지 세심히 논의돼 지역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시 공직자들의 열기가 더욱 뜨거웠다.

최기문 시장은 "국비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해진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와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도·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석열 기자 jsty92920@hanmail.net

# 경산시, 개별주택가격 열람·의견청취 진행

내달 8일까지, 시청 등 방문 확인

경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공시가격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

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고 시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인할 수도 있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 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

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한국부동산원 대구지사 (053-754-7642)로 문의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 kwondrumkakao@daum.net

# 울진,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안전한 일상 책임진다!

### 군민안전보험 보장 범위 확대 최대 3천만원, 15세 미만 제외

울진군은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2017년부터 7년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

고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최고 3000만원 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지역 내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며 별도의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고 지역 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울진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항목을 27개로 확대해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애 등도 보장내용에 포함됐다.

울진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타지자제로 전출 시와 15세 미

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한 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약 3억1000만원 정도다.

김상주 기자 ksj09102@naver.com

# 울릉군, 관광객 친절·응급 대비 교육

### 성수기 대비 관광지 근로자 대상

울릉군은 지난 18일, 19일 이틀간 주요 관광지의 근로자 5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객 응대 시 친절 및 응급상황 대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본격적인 관광 성수기

를 대비해 근로자들이 관광지 운영에 있어 친절과 안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외부에서 초빙한 전문가가 한 시간가량 친절 교육을 진행했으며 강의 전 노래로 분위기를 환기시켜 수강생

들의 호응을 유도했으며 대인 관계 기술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교육했다.

또한 안전교육에서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해 평소 알고 있던 내용도 쉽게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현직 소방관의 지도하에 근로자 전원이 응급상황 대응과 심폐소생술 등의 실습을 직접 실시해 유사시 망설임 없이 대처할 수 있도록 실재적인 교육이 실시됐다.

수강을 마친 근로자들은 "실습을 해보니 현실감이 있어 좋았다",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남한권 군수는 "관광객 한번 한분을 친절로써 대해 울릉군의 이미지가 좋아지고 안전한 울릉도 관광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준비했으며 관광지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유용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영 기자 gst3000@naver.com

# 청도 운문면, 깨끗한 마을 만들기 '팔 걷어'

청도군 운문면에서는 지난 18일 지역 내 주요 관광지인 운문댐 둘레길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는 면 직원들과 새마을3단체 회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 배이스볼파크부터 오진리 마을 입구까지 약 6km가 넘는 운문댐 둘레길의

도로변 및 쉼터 곳곳과 겨울철 도로변 아래 경사지에 버려진 잔존 쓰레기 등을 집중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번 환경정화 활동으로 청도의 관광 명소인 운문의 깨끗한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길 기자 jst2929@naver.com

**경북종합폐차장**  
이사 정 관 호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 77  
☎ 010-7755-2933

**돈덩어리**  
대표 우 성 만  
경주시 백률로 42  
☎ 054-773-5025

**김경희난타연구소**  
대표 김 경 희  
☎ 010-3953-7576



# TBC와 손 잡은 구미코, 마이스 볼륨 키운다

### 전시산업 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공동 홍보·협력 기반 마련 박차 온오프라인 매체 통한 마케팅 힘

구미코가 TBC와 공동홍보 및 구미코 전시사업, 마이스 산업 확대 성공 개척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18일 김석호 구미코 관장을 비롯 박석현 TBC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코 홍보와 전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미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동 홍보 활동을 기반으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경북도 및 구미 전시사업 관련 정보교류 등과 관련해 합의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구미코 전시사업 및 마이스 산업 확대를 위한 대구 경북 지역의 홍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미코 개최 행사 공동 홍보 △경북도·구미코 신규 행사 공동 기획 및 개최 협력 △기타 구미코 개최 행사 성공 개최에 필요한 상호 협력 등 구미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



이며 지속적인 전시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 홍보 등을 진행키로 했다.

김석호 관장은 "TBC와 MOU 체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미시의 문화와 관광 인프라를 홍보하고 경북도 및 구미코에서 개최하는 신규 행사를 공동 기획할 뿐만 아니라 향후 다각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업 발굴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새로운 콘텐츠를 접목한 전시를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동 마케팅 부분에

중점을 뒀 TBC 매체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인지도를 높여 구미코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 지역 경제와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 온라인 영덕장터, 봄맞이 전 품목 10% 할인

### 오늘부터 31일까지 특가 행사 고품질 농특산물 등 상품 선배

영덕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영덕장터(ydmall.cyso.co.kr)가 봄을 맞이해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전품목 10% 할인이벤트를 진행한다.

영덕장터에는 현재 58개 업체가 163개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영덕군의 품질 좋은 제철 농수산물과 특산물, 가공 상품들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영덕장터에서는 올해 1월 설맞이 이벤트, 2월 영덕대게축제 개최기념 이벤트 등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매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판매 마케팅을 강화하고 소비자 혜택을 늘릴 예정이다.

한편 영덕장터 참여를 희망하는 입점업체는 영덕군 농축수산물, 농식품을 직접 생산·가공하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과 주재료 50% 이상 영덕산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품 생산업체이며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 신고증이 있으면 입점 신청이 가능하다.

농촌지원과장은 "영덕장터의 다양한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소비자는 질 좋은 상품을 산지 직송 구매하고 생산자에게는 소득증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관리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노환 기자shghks70@naver.com

## '내가 본 봉화'... 청소년 사진 공모展 개최

### 내달 12일까지 초·중·고 학생 대상

봉화군은 오는 4월 12일까지 '2024 봉화군 청소년 내가 만난 봉화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봉화의 명소, 마을, 여행지를 청소년의 시선으로 담아봄으로써 봉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창의적인 시각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오는 4월 12일까지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동일연령 학교 밖 청소년 누구나 공모 가능하다.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장려상

5명, 노력상 10명, 참가상 시상 및 총 380만원의 상금을 오는 5월 청소년의 달 행사 현장에서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내려 받아 작성 후 작품 및 공모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의 숨겨진 명소와 마을, 봉화의 추억이 담긴 여행지 사진 공모전에 청소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해 봉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휘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제10기 문경시 지보협 "지역 복지증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

### 대표협의체 위원 29명 위촉식 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역할

지난 18일 문경시청 제2회의실에서 제10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대표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단체 대표 등 총 29명의 위원을 구성했으며 민간위원장은 김경범 문경나눔봉사단장이 선출됐다.

공공위원장은 신현국 시장은 "우리 문경시의 사회보장을 대표하는 각 분



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촘촘한 복지연계망을 실현하겠다"라는 뜻

을 전했다. 이어 김경범 민간위원장은 "문경시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이라는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됐다"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데 본인의 역할을 찾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위촉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들은 문경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평가 등 지역사회보장증진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 사회보장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간 연계와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지역사회보장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세현 기자hyun0085@daum.net

## 구미, 이야기가 있는 산업문화투어 운영

### 12월 17일까지 첫·셋째 주 화요일

구미시가 지역 내 산업근대화 과정을 관광하는 '이야기가 있는 산업문화투어'를 운영한다. 산업문화투어는 오는 12월 17일까지 매주 화요일 격주로 실시되며 지난 2022년 산업관광 육성

사업이 문체부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대한민국 근대화 산업 유산을 이야기 콘텐츠로 풀어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오랜 준비 과정을 거쳐 지난해 시범운영 7회, 정기 운영 20회를 운영한 바 있다.

시민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7점으로 시티투어와는 다른 테마형 투어로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호평이다.

산업문화투어는 두 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매월 첫째·셋째 주 화요일에 운영하는 공연형 투어는 전시관, 포토존 관람과 함께 현장 공연에 올케 처음으로 미니콘서트를 추가해 관광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둘째·넷째 주 화요일에 운영하는 스토리 가이드형 투어는 구미의 대표기업을 방문해 가이드의 설명과 함께 제조 과정을 직접 둘러볼 수 있으며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도 구입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신미정 시 낭만축제과장은 "구미만의 특색있는 산업문화투어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익분 기자ub0104@hanmail.net

## 청송,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 '큰 호응'

청송군은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8주간 운영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청송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은 현동면 월매리, 파천면 용정리, 주왕산면 좌리리 경로당을(3개소) 중심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의사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1대 1 건강상담과 침시술을 통해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증상 완화 및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번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주 생활터인 경로당을 방문해 1대 1 건강상담과 침시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윤경희 군수는 "앞으로도 다양한 보건사업을 통해 지역 내 주민들의 면역력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건강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개인별 체질에 맞는 한의약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 더블에이치플랜

## DHP

### 종합이벤트 기획 · 연출 · 진행

대표 현병희

Mobile : 010-3517-1105  
E-mail : hbh0912@naver.com

경북 경주시 양정로 235(동천동) 덕양빌딩 7층



# R&D상용화 바이오 인프라 보유한 포항, 국가 공모사업 유치 '총력'

시,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 위한 그린바이오 사업 확장에 '힘써' 포스텍 등 연구 기반 지속적 확충을 상반기 내 '벤처캠퍼스' 착공

포항시가 바이오 분야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수년간 국내 유일의 3·4세대 방사광가속기, 국내 최초로 도입된 극저온전자현미경,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인 포스텍, 바이오 원천 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생명공학연구원(PTC) 등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우수한 연구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다.

이와 함께 포항시에는 유망 바이오 기업의 벤처창업 플랫폼인 '바이오오픈노베이션센터(BOIC)', 글로벌 신약개발의 중심인 '세포막단백질연구소', 국내 최초 식물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등 R&D 고도화와 상용화를 위한 풍부한 바이오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포항시는 이러한 강점들을 내세워 지난 2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에 신청하며 명실상부한 바이오 미래산업 혁신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포항의 바이오 특화단지 핵심 목표는 우수한 R&D 인프라와 전문 인력양성을 토대로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미래 핵심역량을 활용해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첨단전략기술 역량을 강화해 혁신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것을 주 전략으로 삼고 있다.

포항시의 그린바이오 사업의 확장 역시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큰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린바이오 산업은 높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으로 농식품 및 관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신산업 분야로 주목받고 있는 산업으로 포항은 국내 최초 식물 백신 상용화 시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그린바이오 분야의 다양한 사업들을 중점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2월 농식품부 그린바이오 6대 유망 분야 산업화 거점 중 동물용의약품 거점으로 지정된 바 있는 포항시는 동물

용의약품 거점지원시설의 필요성에 따라 총사업비 150억원을 들여 동물용 그린바이오의약품 산업화 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반려동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반려동물 전용 의약품 개발 및 산업 육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그린바이오 연구개발에 이어 생산공정의 고도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그린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사업'에 지난달 공모 신청했으며 첨단분석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개발 및 생산과정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벤처창업 거점시설 구축을 위한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조성사업(총사업비 350억원) 역시 상반기 내 착공을 앞두고 있다.

신현기자hshin98@naver.com



## 영천, 청년창업 유관기관과 협력의 길 모색

청년창업지원센터 4월 개소... 관련 네트워크 형성·정보 교환

영천시는 지난 14일 영천청년센터에서 창업지원 사업 담당자 20명을 대상으로 '청년창업 지원사업 유관기관 간 교류'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4월 개소 예정인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 위탁 선정기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과(제)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영천청년센터, 관광두레, 영천시 이웃사촌지원센터, 영천마을 융복합사업추진단, 영천시 신활력사업추진단 등 전 분야별 청년창업 지원기관 담당자와 부서별 창업지원 담당 공무원 등이 함께

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은 창업 관련 네트워크 형성 및 기관 간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를 가지고 향후 협력 관계를 통해 영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창업 컨트롤 타워로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상호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김진현 부시장은 "영천시는 지속성 있는 청년창업과 청년 창업 생태계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석열 기자jy92920@hanmail.net

# '일본 소프트뱅크 인턴 프로그램' 안동시 국내 첫 개최

市 과제 5개 선정... 준비 최선 저출생 등 지역 문제 해결 기대

안동시와 ㈜소프트뱅크 관계자는 심도 있는 실무자회의와 및 안동시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 소프트뱅크의 지역 활성화 인턴 프로그램 'TURE-TECH' 개최지로 안동시, 밀양시, 세종시 중 지난 15일 안동시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돼 한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지난 1986년 창립된 이동통신사로 일본 전체의 21%를 차지하며 동 업계 3위로 2023년도 한화 약 59조의 수익을 올린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다.

특히 ㈜소프트뱅크가 속하는 소프트뱅크그룹 손정의 창립이사는 일본 내 자산순위 3위로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기업가로 알려져 있다.

일본 이동통신사 ㈜소프트뱅크에서 실시하는 지역 활성화 인턴 프로그램 'TURE-TECH'는 자치단체가 내포하는 사회적인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대학생과 함께 5일의 현지 조사 및 위



크숍을 통해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에 공헌하는 차세대의 혁신적인 리더 육성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부터 ㈜소프트뱅크 인사가 일본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왔다.

해당 프로그램은 해마다 3000명 정도가 신청하고 엄격한 서류 및 면접 심사 후 30명이 선발돼 과제별로 5명으로 나눠 자치단체가 선정한 과제에 대해 약 5일간 현지 조사와 시민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

프로그램 마지막 날에는 워크숍 성과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시장과의 토론회를 개최, 그 결과를 시장 해결 과제로 시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하며 5일간의 프로그램을 종료한다.

향후 안동시는 소프트뱅크와 정기적인 온라인 회의와 상호 협력을 통해 안동시의 과제 5가지를 선정, 오는 9월 개최될 워크숍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권기창 시장은 "저출생, 도시소멸, 해외 관광객 유치 등 안동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서 도약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과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객관적인 분석과 창의적인 제안은 안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를 전했다.

오명수기자oms7227@nate.com

## 의성군,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시행

의성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업 애로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청년 실업 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2024년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는 인턴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턴 연수 기간 동안 인턴 1인당 월 150만원씩 2개월간 고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인턴에게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10개월 차에 월 150만원씩 총 300만원의 근속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

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해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수기자power5151@naver.com

##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스타 브랜드로"

대구, 10개 사 대상 집중 지원

대구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2024년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공개 모집한다.

글로벌 패션산업을 이끌어 갈 창의적이고 잠재력 있는 신진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10개 사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스타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공고일 기준으로 대구시에 사업장 주소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창업 7년 미만 패션 디자이너는 사업 참여가 가능하며 지원 분야는 의류(여성복, 남성복, 유니섹스), 가방 및 신발 등 패션 잡화 분야다.

시는 신진 디자이너 육성사업에 선정된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10개 사를 대상으로 펙스코(FXCO)에 마련된 개별 창작 및 공동 비즈니스 공간인 펙스코 디자인 스튜디오(FDS) 입주를 지원하며 시장 대응 시제품 개발, 신진 디

자이셔널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서 성장 단계별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육성사업에 선정된 10개 사를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통해 우수 디자이너를 선발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해외 진출, 온라인 시장 확대, 브랜드 강화 3개 분야 중에 디자이너가 희망하는 1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디자이너 육성 등 성과 모델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진행된 '신진 디자이너 육성사업'은 창업 초기 지역 디자이너 브랜드를 대상으로 액셀러레이팅, 시제품 제작, B2B2C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기업 성장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사업 공고문은 대구시, (재)대구테크노파크, 하나로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재)대구테크노파크(053-719-4183)에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환상의바닷길, 바다와하늘이 함께 걷는길  
함께 걸어요, 블루시티 영덕



성주 수륜면 새마을회, 환경정화



성주군 수륜면 새마을남녀지도자회에서는 지난 18일 봄을 맞아 깨끗하고 깨끗한 마을과 거리조성을 위해 버스 승강장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청소에는 이정훈, 여영순 남녀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25명이 참석해 수성리 가람에서 양정을 거쳐 송계리까지 구간의 버스 승강장을 중심으로 승강장 바닥과 의자, 유리벽 내외에 묻어 있는 이물질과 거미줄, 먼지 등을 털어내고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등 혼란함을 자아냈다.

김일호기자hoyal515@daum.net

상주 북문동·지보협, 여성 건강 응원



상주시 북문동 행정복지센터와 북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맞춤형복지팀의 특화사업 중 하나로 지난 18일 지역 내 저소득 모자가정 10가구를 대상으로 여성 가장을 위한 영양제 지원사업을 실시했다.

이번 특화사업은 홀로 가정 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대상이며 바쁜 일상 속 건강한 생활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북문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통장 등이 추천한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영양제는 비타민과 유산균(세트당 10만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재철 민간위원장은 "후원자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뜻깊은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종원 동장은 "주민 복지증진에 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 실현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창환기자changwan12@naver.com

# 예천군청, 국가대표 2인 배출 '경사났네'

양궁 김제덕·육상 최동휘 2024 파리올림픽 출전 확정



이내로 통과하면 파리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육상 10종 경기 종목의 최동휘 선수의 지난 11일부터 국가대표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192cm, 87kg의 뛰어난 체격의 소유자로 육상계의 철인이라 불리며 운동에 천부적인 소질을 가진 노력형 선수로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독보적인 존재로 현재로는 메달권에 들 수 있는 유일한 아시아권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제덕 선수는 2024 파리올림픽에 출전해 개인전과 남자 단체전 그리고 혼성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달성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으며 최동휘 선수는 차근차근 준비해 오는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에서 메달을 목에 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학동 군수는 "김제덕 선수와 최동휘 선수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국가대표로서 국제대회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기록하길 응원하며 앞으로 한국 양궁과 육상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박외영기자p04140@naver.com

## 봉화농협-지역 의료기관 2곳, 치료 지원 MOU

봉화농협은 지난 18일 지역 내 제일의원, 박치과와 의료지원 제휴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중 사고 또는 질환 발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작업자가 적절한 의료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질환 또는 각종 사고 발

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무 특성상 장규 진료 시간 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봉화군으로부터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자 사업'에 선정된 봉화농협은 이번 '외국인 공공형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역 내 의료지원 협약을 통해 한층 발전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관리체계를 갖췄다.

정휘영 기자 jhy4430@hanmail.net



## 문경 마성면 새마을협 "사랑의 감자 심어요"



문경시 마성면 새마을남녀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6일 마성면 외어리 일원의 휴경지에서 사랑의 감자심기 행사를 진행했다.

마성면 새마을회에서는 해마다 휴경지에서 재배한 작물을 나누고 단제기금을 확보해 소외된 이웃을 도우며 지역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파종한 감자는 오는 7월 수확해 지역 내 어려운 독거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김대진 부녀회장은 "생업으로 바쁜 신 가운데도 이른 아침부터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겠다"고 말했다.

김세현기자hyun0085@daum.net

## 청송교육청, 등굣길 교통안전·청렴 캠페인



청송교육지원청은 19일 청송초등학교 후문에서 교육지원청과 군청 및 군의회, 청송경찰서 등 지역 유관기관과 교통 단체 관련자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및 청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청송교육청과 녹색어머니연합회 청송지회가 합동으로 진행

한 행사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의식 제고와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자 실시했다.

더불어 새 학기를 맞아 청렴 정책 홍보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청렴 의지를 향상시키고 청렴 초심을 확립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캠페인도 함께 실시했다. 조영국기자wdr1211@hanmail.net

동 정

EBS 교육뉴스 경북교육 현안 설명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20일 오후 6시 10분 EBS 교육뉴스에 출연해 경북교육 현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송덕전 향사 참석·관계자 격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일 오전 10시 탑동 송덕전 향사 개최되는 송덕전 향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한다.

안동사과 지역특화품종 육성 MOU



권기항 안동시장은 20일 오후 2시 시청 옹부관 융합실에서 열리는 안동사과 감로 지역특화품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한다.

해의 농특산품 판촉·수출품 선전시



박남서 영주시장은 20일 오전 10시 김정환홍삼분사에서 개최되는 LA-밴쿠버 농특산품 판촉행사 수출품 선전시에 참석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



최기문 영천시장은 20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 참석



윤경희 청송군수는 20일 오후 2시 청송군-경북북부교도소 지방상수도 용수공급 협약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치매보듬마을 사업설명회 참석



오도창 영양군수는 20일 오후 2시 석보면 화매권역센터에서 개최되는 치매보듬마을 사업설명회에 참석한다.

농업인단체 한마음 풍년기원제 참석



박현국 봉화군수는 20일 오전 11시 봉화정자무화생관서 열리는 농업인단체 한마음 풍년기원제에 참석한다.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



최재훈 달성군수는 20일 오전 11시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개최되는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 신라문화원 개원 31주년

# 법륜스님 초청대법회

## 『서악마을이야기』 출판기념식

일시 2024년 4월 3일(수) 저녁 7~9시

장소 서라벌문화회관

☎ 054-777-1950 www.silla.or.kr

법륜스님은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평화운동가입니다.

### 『서악마을이야기』 출판기념식

서악마을이야기는 선도산 아래 태종무열왕릉, 서악동 삼층석탑 등 많은 문화유산이 산재한 마을을 지난 14년간 신라문화원이 문화재청, 경주시, 마을주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문화유산 보존과 활성을 통하여 문화유산 마을로 바꾸어가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대담 신라문화원 원장 진병길  
글쓴이 해리하우스 대표 양희송

<p><b>현재</b> 정토의 지도법사 (재)평화재단 이사장 (사)한국제이티에스 이사장 (사)에코부터 이사장 (사)좋은벗들 이사장</p>	<p><b>주요수상</b> 2020 제37회 내외노평화상 수상 2018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006 제2회 DMZ 평화상 교류협력 부문 수상 2002 막사이사이상 평화와 국제이해 부문 수상 2000 제4회 만해 포교상 수상</p>
--	---





청송군은 청송시니어클럽(관장 황진호) 주관으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활동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8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간 중 7일 동안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읍·면별로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참여 어르신 4087명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일자리 참여를 위해 필요한 직무, 소양 및 안전 수칙 등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군은 올해 총 162억원의 예산으로 청송시니어클럽을 통해 어르신 4087명에게 노인일자리 제공하며 전년 대비 536명의 참여 인원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해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윤경희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영국 기자wdr1211@hanmail.net

의성, 지역특화음식 활성화 교육



의성군은 지역농산물 소비를 확대하고 향토자원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9일까지 우리음식연구회 60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역특화음식 활성화 교육'을 추진했다.

이번 교육은 건강한 치유밥상 한상차림을 주제로 의성군의 지역농산물인 마늘, 가지, 산수유, 사과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치유음식 실습 교육으로 진행됐다. 면역보강을 시작으로 당도, 향암, 저염, 치매예방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밥과 찌개, 반찬, 샐러드로 이뤄진 한상차림을 선보였다.

김주수 군수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건강밥상 교육을 통해 의성군민의 식생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강한 조리법을 정립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건강한 먹거리 개발과 식생활 문화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정성수 기자power5151@naver.com

# 서학식 회장 "안보단체 위상정립에 앞장설 것"

## 김천재향군인회 이취임식

김천시재향군인회는 지난 16일 렉서리레딩홀에서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서경오 육군부회장과 안동시, 구미시, 문경시, 칠곡군, 봉화군 등 도내 시·군 재향군인회장을 비롯한 향군 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등 북한의 침략야욕과 4·10 총선을 앞두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좌파들의 선동에 맞서 지역사회의 올바른 안보의식 확립을 통한 안보단체로서의 위상 정립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학식 군인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한민국 최대·최고 안보단체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정립하는 한편 회원 복지증진과 여성 재향군인회와 함께 지역봉사활동 등을 통해 신뢰받는 재향군인회로 거듭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8년간 김천시재향군인회를 이끌어 온 이정화 회장은 "비록 오늘 회장직을 내려놓지만 그동안 맺은 소중한 인연을 간직하면서 회장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이어갈 것이며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재향군인회를 위해 함께 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행사에서는 김경희 시 복지환경국장, 정문규 50사단 5837부대 3대대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했으며 조

원구 고엽제전우회 김천지회장, 이삼 6·25참전유공자회 김천지회장 등 8개 보존단체 김천시지회장 등 단체장을 비롯한 송인석 국회의원, 이우청·최병근·조용진 도의원, 박대하 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나영민·진기상·이상욱·김세호·배형태 시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박규석 부회장과 대곡동 등 재향군인회가 중앙회장 표창을, 정주

섭 대덕면재향군인회장이 도회장 표창을 받았다. 또한 이정화 회장과 김일규 해병부회장이 국회의원 표창을, 신형구·신용운·송희종 이사가 각각 시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이정화 선임 회장에 공로패와 함께 순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 이흥화 대한병인의 진필 휘호가 담긴 족자 등 뜻깊은 선물을 전달했다.

금광수 기자kgs5149@naver.com

## NH농협 경주시지부, 헌혈로 '생명나눔' 실천

NH농협 경주시지부는 19일 지역 내 농축협 임직원들이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과 함께 황성공원 주차장에서 '2024년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농축협 임직원들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이바지하고자 자발적으로 헌혈행사에 참여했다.

조현철 지부장은 "생명나눔 및 이웃사랑 봉사를 위해 바쁜 업무 중에도 솔선수범해 헌혈에 참여해 준 지역 내 농

축협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헌혈자 감소로 부족해진 혈액 수급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NH농협 경주시지부는 유관기관 및 취약계층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경규 기자seoul411@hanmail.net



## 성주, 등굣길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 '최선'



성주군은 성주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통행로 및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 통학로 확보를 위해 19일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사)녹색어머니중앙회

경북성주지회 주최로 군청, 성주교육지원청 및 성주경찰서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초등학생들의 등교시간에 맞춰 학교 앞을 지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김일호 기자hoyal515@daum.net

## 봉화경찰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



봉화경찰서는 19일 봉화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봉화교육지원청, 군청,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함께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및 어린이가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등교시간에 맞춰 캠페인을 실시하게 됐다.

금주현 서장은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더 나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취영 기자jhy4430@hanmail.net

## 영천, 저출생 위기 극복 '한마음'



영천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시민체감형 시책을 발굴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을 위한 '저출생 극복 성금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다.

19일 성금 모금을 위한 첫걸음으로 NH농협 영천시지부(지부장 박성용), 대구은행 영천영업부(영업부장 박상준), 한승훈(영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영천시에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각각 기탁했다.

최기문 시장은 "전달해 주신 성금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업에 소중한 사용하겠다"라며 "저출생은 국가의 위기고 지방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로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영천 시민의 저력으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식열 기자jsy92920@hanmail.net

## 이안면,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상주시 이안면은 지난 18일 '2024년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21일까지 4일간 이안면복지회관 회의실에서 시청 기획예산실 주관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참여한 20명의 이안면민은 소지한 스마트폰을 통해 강사로부터 생활상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스마트폰 기기 조작법을 학습했다. 남은 기간 스마트폰의 주요 기능에 대해 학습함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으로부터 디지털 비사용자가 배제되지 않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정보 소외계층을 위해 1대 1 맞춤형 교육을 시행해 중·노년층이 핸드폰 사용에 불편함을 줄이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창완 기자changwan12@naver.com

역사·문화·풍경 속을 걷는 문경 여행의 꽃

**문경새재도립공원**

# 문경 모든 여행을 담다

전통과 현대, 자연과 문명이 공존하는 생생한 역사와 문화의 보고, 문경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가 가득하고 1년 내내 색다른 재미를 더하는 축제까지! 문경에 머무는 모든 순간이 추억이 됩니다.

백두대간의 절경을 한눈에 즐기는 짜릿함 **단산관광모노레일**

국내 최초 문화 생태 영상 복합 테마파크 **문경에코월드**

공정의 힘 **Yes 문경**



# 대구아트웨이, 시민친화 문화 공간으로 변신

### 2024 비전 '창작-유통-소비' 제시 토크콘서트·미니특강 접근성 UP 작가·시민 동참 예술 향유 유도 국내외 관람객 다수 유치 박차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대구아트웨이가 '예술작품을 유통·소비·향유하는 시민 친화적 전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구아트웨이의 2024년 비전은 '창작-유통-소비가 연결되는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대구아트웨이는 예술작품의 유통·소비·향유를 위한 시민 친화적 전문 공간으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먼저 기존 공간을 정비하고 재배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현장에서 작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 특히 인디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던 '창창더하기' 공간을 활용해 공예작품, 장식, 생활용품에서부터 도서, 음반, 굿즈 등을 전시, 판매하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아트 클래스와 토크콘서트, 미니



특강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존의 '미술점빵(미술작품 팝업스토어)'도 계속 운영해나간다. 지역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고 실제 구매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유지하며 '작가와 시민의 만남'을 통해 시민과 작가가 현장에서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민 대상 예술 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16명의 예술인이 입주해 있는 스튜디오에서 매주 시민 대상의 다양한 장르의 아트 클래스를 열 예정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스튜디오에 전시된 예술작품에 대한 전시 해설은

물론 구입까지 가능하다.

지역 예술가(단체)와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갤러리는 노년층을 비롯한 시민 예술가들의 참여가 활발한 공간이다. 대구아트웨이 곳곳에 설치된 세 곳의 유휴 공간(벽면)을 활용해 시민의 예술 향유는 물론 참여까지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시설 이용 지원도 이어진다. 창작 지원 시설 오픈 갤러리, 미디어룸과 공유 오피스와 라운지 등의 문화예술 비즈니스 활동 지원시설까지 예술인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을 무료로 지

원한다. 지역 미술대학생과 청년 미술작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청년키움 프로젝트'에 선정된 작가에게 개인전 및 단체전 개최도 지원한다. 전시와 함께 1대1 전문가 매칭 및 평론 프로그램이 지원되어 전시 경험과 함께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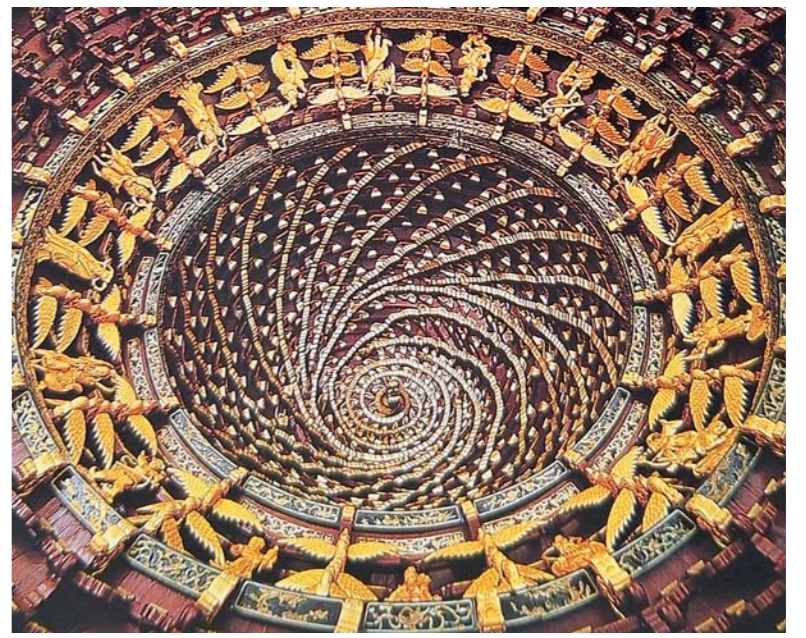
또한 지난 12일 개막한 '우리, 페이지를 넘기다'를 시작으로 총 4회의 기획 전시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전시 연계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예정이다.

연말 대구아트웨이에서 만날 수 있는 '범어원터아트페스타'에서는 기획 전시, 플리마켓, 토크콘서트와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개최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송년 기획을 또 한번 선사할 예정이다.

박순태 문화예술본부장은 "대구아트웨이는 예술작품 유통·소비·향유를 위한 시민 친화적 전문 공간으로 400m에 달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예술 산책길로 자리 잡고 있다"라며 "앞으로 대구는 물론 국내외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두용 기자kwondrumkakao@daum.net

윤호세가연구소 유정 정은숙의 주요문화칼럼 - 풍류의 정신 사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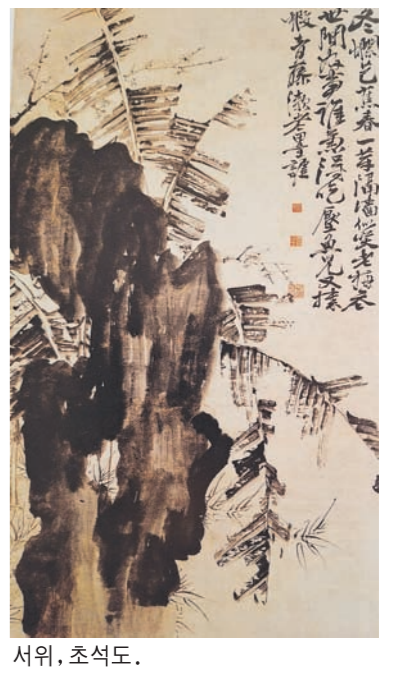
산서성, 천화(天花).

## 명(明) 새물결 광달자방의 사군자(20)

(狂達自放)



진순, 묵단도.



서위, 초석도.

문학의 폭 넓은 영역은 다양한 삽화가 그려지고 수요층이 늘어나고 색도 인쇄가 한층 발달하게 되면서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게 됐다.

다색판화 인쇄는 염색 분야의 성장 발달에 변화를 가져왔다.

명 초기에 비해 그림에 채색의 도입이 풍부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고대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응용한 서구 화법과 기법이 도입되고 제스위트 선교사들을 통해 영향을 끼친 중국 미술사의 흐름에서 화원 화가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통과 변화를 물결에 대한 문화 충돌이 겪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예술가들이 주장의 목소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명 말의 불안정한 시기에 현실 세계와 동지가 시작하는 우리도 명 말의 사대부와 함께 해

문학의 폭 넓은 영역은 다양한 삽화가 그려지고 수요층이 늘어나고 색도 인쇄가 한층 발달하게 되면서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게 됐다.

다색판화 인쇄는 염색 분야의 성장 발달에 변화를 가져왔다.

명 초기에 비해 그림에 채색의 도입이 풍부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고대 유명화가들의 그림을 응용한 서구 화법과 기법이 도입되고 제스위트 선교사들을 통해 영향을 끼친 중국 미술사의 흐름에서 화원 화가들의 관심이 높았다.

전통과 변화를 물결에 대한 문화 충돌이 겪는 과정으로 이어졌다.

예술가들이 주장의 목소리가 강해지기도 하고 명 말의 불안정한 시기에 현실 세계와 동지가 시작하는 우리도 명 말의 사대부와 함께 해

문학의 폭 넓은 영역은 다양한 삽화가 그려지고 수요층이 늘어나고 색도 인쇄가 한층 발달하게 되면서 사회문화에 영향을 주게 됐다.

# 예천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 '순항'... 경북도 심사 '통'

### 전국 최초 부정적 평가 無 '2연속' 사업 소요시간 1년 이상 단축 '성과'

예천박물관은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 수장고 증축사업 사전평가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5월 경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로 2차례의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건립 사전평가에서 1차

례의 부정적 평가 없이 2연속으로 통과했으며 이번 경북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도 4개월 만에 통과했다.

특히 준비과정은 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박물관 직원들이 전문성을 토대로 직접 투자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성립, 연구수행, 투자심사 의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1년 이

상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한편 예천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은 총사업비 150억원으로 부지면적 3250㎡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3300㎡의 규모로 오는 2025년에 착공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예천박물관은 지난 2020년 12월 임시 개관 이후 유물 수집과 수집 자료 전시 교육, 학술연구 등으로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으며 예천에서 생산되

고 전래된 '대동운부군옥' 목판 및 고본, 조선 전기 금속활자본(계미자) '사시찬요'의 국보 승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예천박물관 수장고 증축사업은 예천 역사의 우수성을 알리고 예천이 경북지역의 문화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외영 기자p04140@naver.com

## 조선후기로 떠나는 '스케치 여행'

### 김천시시설관리공, 인문학 교육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오는 4월 11일부터 김천시립박물관 인문학 교육프로그램 '조선후기 화가들의 스케치 여행'을 개설한다.

이번 강좌는 '이야기 한국미술사'의 저자 이태호 교수의 실감을 김천지역에서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로 마련됐다. 강의는 총 8강으로 '산수화와 진경산수화', '겸재 정선', '단원

김홍도', '아름다운 금강산', '한강, 그리고 임진강', '영남의 명승들'로 구성됐다.

이번 강좌를 이끌어갈 이태호(李泰浩) 교수는 명지대학교 미술사학과 석좌교수로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및 문화재위원을 지냈으며 흥익대학교 회화학과 동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사를 거쳐 전남대학교 교수와 박물관장, 명지대학교



박물관장,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장을 지냈다. 수강생 모집은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강좌는 오는 4월 11일-5월 16일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두 시간 동안 진행된다. 교육 신청은 김천시립박물관 누리집

에 접속해 '예약하기' - '교육예약' 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모든 강의를 수료한 교육생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점은 박물관(054-421-1517)에 문의할 수 있다.

김재광 공단 이사장은 "지역민의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알찬 교육을 개설해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대 김천시립박물관을 통해 김천지역 내에서 전문적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kgs5149@naver.com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은 영양

영양 나들이의 시작은 여기에서

**길**

정말 힐링이네요! 걷다 보면 힐링이네요!

**빛**

정말 힐링이네요! 걷다 보면 힐링이네요!

**맛**

정말 힐링이네요! 걷다 보면 힐링이네요!

**쉼**

정말 힐링이네요! 걷다 보면 힐링이네요!

## 영양 들머리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강릉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ida DARK SKY ASSOCIATION

- 영양의 자연, 일월산, 선비와 남이로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칠계곡원, 촉백수림, 외씨바선길
- 영양의 역사, 옥사디미반, 서석지, 두들마을, 주심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김선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영양국립박물관, 반달봉이전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농부시장, 일월산자연생태공원, 영양공예발전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영양선촌생물박물관, 본재수석야생화전시관



칼럼

독일군 최악의 패전, 스탈린그라드 전투(上)

임용한  
KJ인문경영연구원 대표



1943년 1월 30일 소련군에게 포위돼 스탈린그라드에서 항전을 계속하던 독일 제6군 사령관 프리드리히 파울루스 대장은 히틀러의 진서를 받는다. 자신을 원수로 진급시킨다는 진급 명령서였다. 이것은 소련군에게 항복하지 말고 자살하라는 의미이기도 했다.

파울루스는 자살을 거부했고 다음날 사령부를 습격한 소련군에게 생포됐다.

2월 2일 독일군 마지막 수비대가 무너졌고 파울루스는 항복문서에 서명했다. 독일군과 추축국 병사 60만명 이상이 투입된 전장에서 약 9만 1000명이 포로로 잡히고 나머지는 전멸했다.

이 포로들 중에서도 종전 후에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승리는 했지만 러시아군의 희생도 엄청났다. 정확한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축국 병사들보다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았다. 민간인 희생자 수도 엄청났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승승장구하던 독일군의 패전의 상징이고 민간인 포함 수백만에 달하는 사상자를 낸 끔찍한 전쟁이었다. 이런 참극이 벌어진 일차적인 책임은 히틀러에게 있다.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애초에 벌어지지 않아도 될 전투였다. 물론 이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고 양측은 한쪽의 병력이 다 소모되기 전에는 전쟁을 그만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곳에서 불필요한 희생을 냈다는 것은 반성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1942년 후반 독일군의 모스크바 공략 작전은 실패가 분명했다. 소련군은 반격을 개시했고 전 전선에서 독일군의 열세, 독일의 병력, 보급, 물자 등 모든 역량이 소련을 점령하기에는 불가항력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민들은 모르고 있었지만 독일군 지휘부는 이 사실을 알았다.

장성들은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모아 우크라이나만 점거하자고 했다. 식량과 자원이 풍부한 우크라이나는 독일이 1차 대전 전부터 병합하고 싶어 했던 땅이었다. 보급도 용이하고 독일군의 역량을 집중하면 소련군의 탈환시도는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독재자가 이 제안을 거부했다. 모스크바 점령 실패에 실망한 히틀러는 새로운 보상을 요구했다. 아니 수세와 방어전에 치중한다는 자체를 견뎌낼 수 없었던 것 같다. 그의 권력은 승승장구를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었다.

“전진이 아니면 패배다”. 군사적으로는 틀린 말이지만 독재자에게는 옳은 말이다. 선동과 폭력으로 권력을 잡은 히틀러에게 더욱 그러했다.

히틀러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병력을 전진시켜 로스토프를 점령하고 카프카즈 유전지대를 확보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렇게 독일군이 동쪽으로 진격하면 북쪽에 집결해 있는 소련군에게 측면을 길게 드러내게 된다.

독일군은 카프카즈 원정군의 측면을 엄호하기 위해 B집단군을 돌려 나눠 절반은 로스토프로 절반을 북쪽으로 파견했다.

이 작전의 명칭이 청색작전이었다. (독소 전쟁에서 독일군은 색깔로 작전명을 삼았고 소련

군은 별 이름을 작전명으로 썼다)

▲청색작전: 모여드는 독일군

청색작전의 영역에는 동서로 흐르는 돈강과 남북으로 흐르는 볼가강이 있었다. 이 두 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공업도시가 스탈린그라드였다. 현재의 볼고그라드이다. 제정시대에 이 도시는 차리진이라고 불린 요새도시였다.

1918년 스탈린은 이 도시에서 적군을 지휘해 백군의 공격을 4개월 동안 막아낸다. 이 항전으로 스탈린은 레닌의 눈에 들었다.

스탈린은 훗날 이 차리진 전투가세비키 혁명을 성공으로 이끈 결정적 사건이었다고 포장했다.

당연히 그 정도의 승전은 아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스탈린은 이 도시에 자신의 이름을 부여하고 자신과 볼셰비키 혁명, 새롭게 탄생한 소련의 역량과 에너지, 공산주의가 주는 풍요를 상징하는 도시로 재건했다.

스탈린그라드 점령은 독일군의 처음 목표에는 없었다. 히틀러의 명령이 마땅치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지만 처음부터 독일군의 작전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다.

소련군을 공격할 것인가? 전술 거점을 점거하고 방어선을 구축할 것인가? 방어거점을 점령한다면 어디를 먼저 점령할 것인가?

스탈린그라드는 이 모든 목표에서 벗어나 있었다. 도시 인구는 50만명이었지만 소련군도 없었고 우크라이나에서 너무 멀었다. 유일한 전략적 장점은 소련 제3의 공업도시로 막대한 군수품 공장과 전차가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를 점령해서 파괴하는 소련의 생산능력 못지않게 이 긴 보급로를 유지하는 독일군의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었다. 뉴스1  
(2461호에 계속)

독자기고

화재 시 행동요령 ‘불나면 살피서 대피’

임주희  
예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청이 발표한 ‘2019-2023년 아파트 화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약 5년 동안 전국에서 1만 4000여건의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화재 발생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아파트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올바른 대피 행동요령을 알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나면 살피서 대피”라는 간단하지만 기억하기 쉬운 원칙을 통해 화재 상황에서의 대피 방법을 알아보자.

△자택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경우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비상층과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119에 신고한다.

△자택 화재 시 대피가 어려운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서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문 틈새 등을 막은 후에 119에 구조 요청을 한다.

△다른 곳 화재 시 자택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 화재 사실을 자택에 있는 사

람에게 알리고 무리하게 외부로 피난하지 않으며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한다.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한다.

△다른 곳 화재 시 자택으로 화염·연기가 들어오는 경우 화재 사실을 자택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가 가능한 경우 ①번 행동요령을, 복도·계단에 연기 또는 화염이 있어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②번 행동요령을 참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런 대피요령만큼 중요한 것은 각자 거주 중인 아파트의 상태를 평소에 파악해 두는 것이다. 집집마다 아파트 환경에 맞는 대피계획을 짜고 소방·피난시설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을 강조한다.

사설

트럼프 복귀면 세계질서 요동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2일 공화당 경선에서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는 대의원 과반을 확보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오는 11월 ‘리턴 매치’가 확정됐다.

사업가 출신으로 상업주의적 안보관을 가진 그가 복귀한다면 세계 경찰을 자처해 온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 근간은 또다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더’ 미국 중심의 ‘덜’ 협력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그의 외교 정책들은 다양한 발언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다.

트럼프 1기에서 워싱턴의 정치 비평가들은 그를 미국을 위협에 빠뜨리는 ‘광대’, 혹은 아무것도 모르는 포퓰리스트로 표현했지만 트럼프의 발언과 정책들에는 나름의 논리가 존재한다.

그기저에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있다. 이 가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 슬로건은 물론 각종 대외 정책에서도 잘 드러난다.

미국은 소련 붕괴 이후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스템을 바탕으로 패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는데 9·11과 경제위기를 거치며 단일패권국의 위상도 흔들렸다. 이에 대한 트럼프의 대응 방식은 달랐다.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고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힘을 써온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거래적 국제관계관을 갖고 명분보다는 실리 확보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강한 미국’을 세우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 자명하다.

트럼프는 “미국이 세계의 경찰 노릇을 계속할 수는 없다”며 방위비 전쟁에 불을 댕긴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거나 러시아가 나토 동맹을 공격해도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기동 역할을 하는 나토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백악관 비서실장을 지낸 존 켈리,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 등 전직 관료들은 지난달 CNN에 “트럼프는 나토 동맹의 존재 의미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며 “재선하면 나토 탈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우선주의는 외교 정책에서 실용주의적 접근으로 이어졌다. 그는 집권 1기(2016-2022년) 동안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관계에서 드러나듯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독재자와 대화하는 것도 거리까지 않았다. 집권 당시 그는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한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기조는 집권 2기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트럼프는 최근 ‘극우 포퓰리스트’라고 평가받는 헝가리의 빅토르 오르반 총리와도 조우했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밀월을 이어오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의 역사학 교수 마거릿 맥밀런은 DW에 “트럼프 정권하에서 그들(권위주의 독재자)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반발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용주의는 고립주의로 진화했다. 트럼프는 다자 관계보다는 양자 관계를 중시했다. 마음이 맞는 파트너 국가들과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취지다. 취입과 동시에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한 것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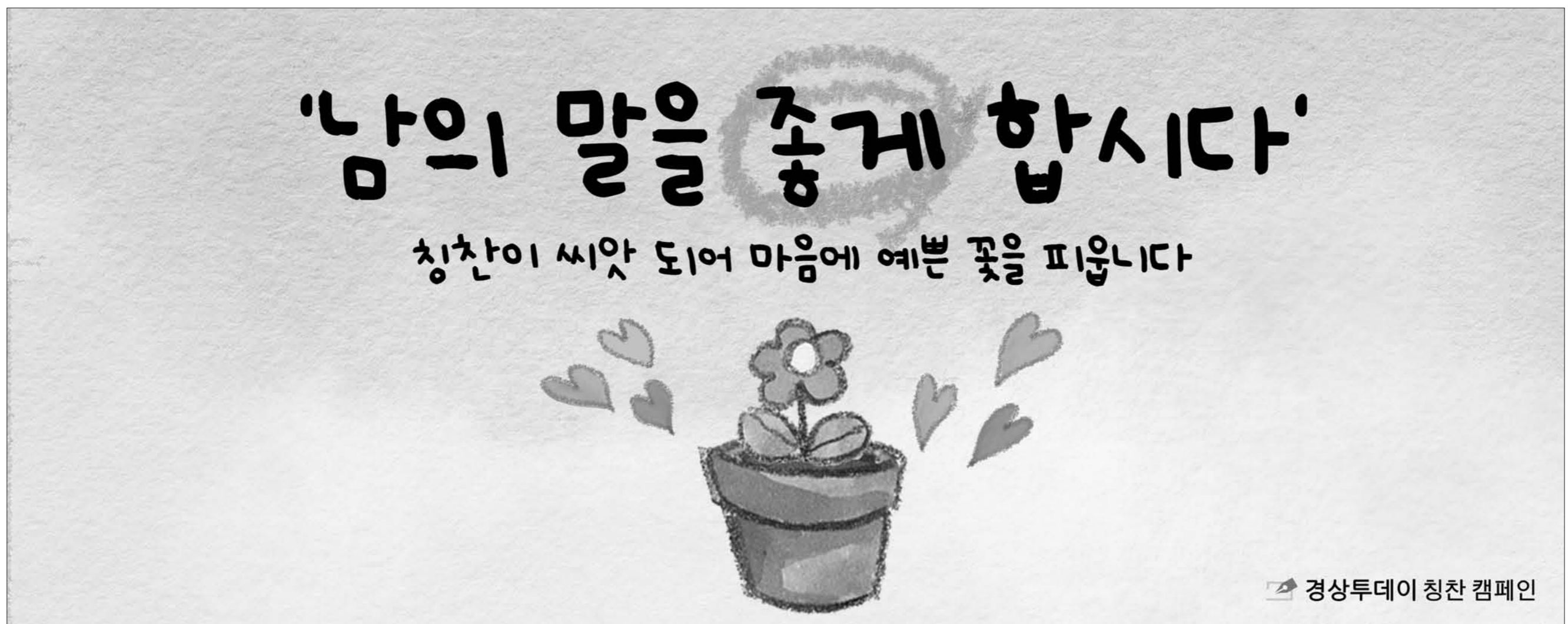
지난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손을 묶고 주권을 포기하는 대규모 합의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미국은 다자보다는 양자 관계를 중시하고 국제 문제에서 미국의 개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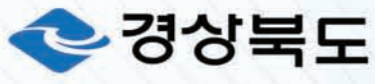
문제는 고립주의에 가까운 미국의 대외전략은 세계 곳곳에서 긴장감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 외부필자의 글은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경상투데이		창간 2014년 3월 31일 등록번호 경북.가00032 http://www.gyeongstoday.com	
발행·편집인 이승협		편집국장 박성택	
본사 대표전화 (054)748-0070	사회 2부 <구내>1005	판매·광고 (054)748-0070	
편집부 <구내>1004	문체부 <구내>1007	경영·관리국 <구내>1006	
사회부 <구내>1006	정경부 <구내>1008	F A X (054)748-3363	
구독·광고·계보 ☎054-748-0070		E-mail : gst3000@naver.com	
·경주시양정로 256(동천동) 덕양빌딩 8층 구독료 월정 10000원/1부당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경북의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 경상북도가 「K-U시티 프로젝트」로 지방전성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 JOB 기업수요** 지역전략산업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주거안정** 창의적 명품도시 건설, 클라인가르텐(작은정원)
- 인력양성** 시군-대학-기업 전략산업 기반 인력양성체계 구축
- 문화복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의료원, 교육시설, 문화공간 등 조성

산업단지      주거단지      커뮤니티센터      클라인가르텐

